

여행에 대하여.

2006/07/25

벌써 며칠째 짐을 챙긴다.
여행 떠날 마음을 먹고 나면
준비물 메모를 할 때부터
설래 이기 시작한다.
마음은 감상에 젖어서 이미
그곳의 대기속을 먼지처럼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 며칠간은 늘
설렘과 기대로 밤을 지새운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떠날 날이 다가오면
납덩이같은 우울이 밀려온다..
주렁주렁 매달려 떼어 내려 해도
떨쳐지지도 않고, 차마 떨쳐 버릴 수도 없는
업보가 너무 무거워서
여행길만은 가볍게 떠돌고 싶으나
그것은 마음뿐 늘 그래왔듯
이번 여행길 역시, 허적허적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이 뻔하다.
허접 쓰레기 욕신일랑은
휘익 벗어나서 던져 버리고
핏빛 영혼만 부평초처럼 떠돌다

차라리 길이라도 잃어 버렸으면 좋겠다.

베이징

2006/09/16

위:베이징, 파산쯔 근방에있는 입체와 타블로를 같이하는 작가 작업실.
전쟁터 같은 치열함 보다는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
내가 방문한 작업실 스타일은 하나같이 비슷한 풍경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작업실의 개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나 작업실 스타일을 놓고 율고그림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아래: 다산쯔에 있는 한화랑, 공장건물을 개조한 이 화랑의 실내는 비행기 격납고처럼 넓고
높았다. 웬만큼 큰 작품이 아니고서는 아예눈에 들어오지도 않을듯 하였다.

오전 10시 10분,

비행기는 이륙하고 밀려오는 졸음에 잠시 눈을 붙인다.

눈을 뜨니 옆에 앉은 J는 아직 졸고 있다.

이야기 하느라 새벽녘에 잠들었으니 잠이 모자랄 만도 하지.

두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이니 비행기는 곧 베이징공항에 도착했고

우리는 복잡한 대합실을 빠져나왔다.

기다리고 있던 조선족 안내인의 차에 몸을 싣고 호텔에 도착,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화랑과 미술 관련 거리인 따산쯔(大山子) 지역에 들러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규모가 놀라웠다.

또 다른 거리에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와 표화랑도 둘러보았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큰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시공간이 훌륭했다.

현재 전시하고 있는 인도 작가들의 작품들 또한 수준급이었다.

면모가 국제적인 화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며칠에 걸쳐서 내가 거쳐해야 할 집과 작업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J와 친분이 있는 몇몇 중국화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이면 그들과 식사를 겸한 술도 가볍게 마셨다.

대화중 한국사람들이 아파트값을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를 해 왔을땐 얼굴이 화끈 그렸다.

내가 만난 화가들의 평균 연령이 3,40대 중, 초반 이였지만

그 중에는 이미 세계적인 화가가 된 이도 있었다. 일찍 행운을 거머쥔 것이다.

작가들의 작업실은 불럭마다 애초 작업실 용도로 설계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큰 골목 한쪽, 혹은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입구엔

수위가 거처하는 집이 있고 중앙으로 뻗은 시멘트 길 양쪽으로

가로수와 작업실들이 규칙적으로 들어서 있었다.

한 동에 최소한 20~50실 이상의 작업실이 있었고 동수는 가늠할 수 없이 많다.

둘러본 작업실의 평균 평수는 대략 실 평수 50~100평가량 되었다.

구조는 작업실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정 남향이라 밝다.

벽은 시멘트 구조물,천정은 창이 떨어진 샌드위치 패널, 벽면높이5m이상, 화장실하나, 난방은 라지에트, 노출계단2층에 설 수 있는 방 하나, 비품들은 거의 없고 흰 페인트가 칠해진 양쪽 벽엔그림들과 200호 ~ 5, 600호이상의 캔바스가 쌓여있고

중앙엔 소파와 오디오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남쪽으로 난 큰 창 앞에는 잔디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 위로 햇살이 쏟아진다.

고즈넉한 환경 속에서 하루평균 12시간씩 작업한다고 했다.

작가들의 표정은 밝고 명랑하든지 과묵하고 말이 없다.

우리나라의 몇몇을 제외한 청,장,노년의 화가들 대다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궁핍함과 절망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1,500,000,000 인구 속에서 걸려져서 이미 선택받은 작가들과 5,500만의 인구 속에서 그것도 넘쳐나는 미술인구속에서

선택받길 기다리는 작가들의 입장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냐만,

(작품의 질을 생각하면 더욱 율화통이 터진다)

세계적 화상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어있는 이들이 부럽고 질투가 났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돈벼락을 맞은 3~40대작가들의
그림수준이 내 눈엔 아직 꽃내가 가지지 않은 듯 해 보인다. 것이었다.
물론 세계의 미술 판을 주무르는 화상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실수를 저지르기야 하겠냐만
작가들을 과대 포장하고 있음은 확실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중국 내 엄청난 부호들의 돈지갑을 미술시장에 쏟아내게 하기 위해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일설에는 중국 내 미술품 수집이 가능한 인구의 잠재규모가
오천만 명쯤은 족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아닌가!
그러니 침체된 세계미술 시장에서 군침 흘리기엔 충분한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 와중에 이들은 어부지리의 행운을 거머쥔 것이고
세계각지에서 모여든 화상들은 역사가 짧고 층이 얇은 중국의 현대미술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리라.
이미 돈벼락을 맞은 작가들은 그 벼락의 단맛을 지속시키기 위해
수요를 충당할 작품생산을 쉽 없이 해 내야하니
실험과 자기모색을 위한 노력 대신 단시간 내에 많이 그릴 수 있는 방식을
연구 개발해내기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큰 화폭에 도식화된 방식의 그리기와 단순한 배경, 얇은 칠,
그 속엔 작가의 고뇌를 통해 길러 올려진 깊고 번득이는 정신성도 없고
각자가 맘과 고통으로 이루어낸,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와 채취도 없다.
그 나이만큼의 열정도 없다.
그러니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건조하고 일러스트화된 물질만 존재한다.
국제적 명성과 경제적 성공을 거머쥔 이들의
미술을 인식하는 정신성과 그리기 방식이
그들같은 성공을 열망하는 2진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닮고 흉내 내기위해 온 신경을 쏟아 붓는다.
작업실을 돌면서도 세계 미술시장의 음모에 이들이 희생양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베이징 주변부 여기저기 흩어져서 때를 기다리며 밤낮없이 작업에
매어달려있는 수천명의 차세대 작가들을 생각하면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오히려 현재로선 열 외의 그들이 중국현대미술 미래의 싹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뿐만아니라 이미 선배들이 세계를 향한 물꼬를 튼으니
숫적인 우월로 세계 미술의 지형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리란 생각을 조심 스럽게 해본다.
그 와중에 베이징으로 몰려든 국제 화상들의 관심은 오직 중국작가들의 작품에
온 신경이 쏠려있네
그곳 미술 판으로 옮겨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온갖 부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부러워서
난생처음 여러가지 면에서 한심한 내나라를 진심으로원망했었다.
며칠이 지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한 자신이 부끄럽다.

나라가 무슨 잘못인가. 나라를 망쳐먹는 인간들이 잘못이지.
암튼, 머지않아 작업실은 베이징으로 옮겨질 것이고
작업의 열기로 넘실그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의 예술을 위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열정을 바칠 것을 각오한다.

반성 2006/10/01

오며 가며 건성으로 스치듯 풍경 속에 차를 멈추고 내려선다.
잘 익어 소담스레 늘어진 벼 알갱이들을 양손바닥에 가득 움켜 쥐어본다.
인기척에 놀란 메뚜기들이 사방을 튀어 오르고 하늘은 온통 고추잠자리 발이다.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도 밤이며, 사과며, 호박이며, 대추며
가을거리들이 길가 좌판 위에 풍성하고 그득히 쌓여있었다.
작업실 마당에도 나뭇가지엔 벌써 마른 잎들이 바람에 서거기고
그 아랜 조금씩 낙 잎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요란스러이 찾아온 가을조차 채 느끼지 못할 만큼
무엇이 그렇게 바쁘기만 했든 것일까?
사실은 바쁜 것이 아니라 괜히 바쁜 척 하며
헛되게 쌓여가는 시간의 소리를 흘려듣고 있었든 것이다.
화가가가 그림 그리기에 투자하는 시간외에 바쁜 것은 바쁜 것이 아니다.
6월초 개인전을 끝으로 작업실에 누긋이 앉아있었던 시간이나 얼마나 있었던가?
이 핑계 저 핑계로 개으름을 피우며 어느새 뻥질이가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 여행도 다녀왔고 베이징에 작업실 구하느라 들락 그렸고
개인전 준비 때 쓰러졌든 과로의 후유증이 아직도 완쾌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것은 의사 말 듣지 않고 몸을 함부로 굴린 탓이니 핑계될 일도 아닌 것이다.
오늘은 요즈음 하고 있는 짓거리가 한심하단 생각이 들어서
정곡을 피해 자꾸 달아나려고만 하는 자신의 복잡한 심리를
억지로 붙들어 매어두고 분석해 보니
개으름에 익숙해진 몸뚱어리를 위해
재빨리 변명거리를 찾아내곤 합리화로 무장하는 스스로가 놀랍다.
그런 방식으로 달콤한 개으름의 나락을 즐기기 위해
도를 넘기며 아까운 시간들을 죽이고 있었든 자신이 한심한 것이다.
또 한번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된 환경을 위하여 중국 행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이미 덕지덕지 달라붙은 변명과 합리화의 각질의 뜯어내고
체질 개선으로 제 무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국 행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태해진 몸을 일으켜 새우고 무조건 붓부터 잡고 볼 일이다

새벽에, 2006/10/10

그림 그리기를 시작 했으니
요즘은 거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쏘 살 같은지
잠시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와있곤 한다.
주섬주섬 붓들을 챙겨 놓고 작업실을 나서면
하늘은 며칠째 온통 별 받이다.
마당을 가로 질러 침소로 가는 사이 바라보는 별들은
간혹 꿈으로 까지 연결되어서
새벽 내내 별빛 속을 헤매다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
오늘은 새벽빛과 함께 안개가 문턱까지 밀려와있다.
안개에 가려 흐미한 가로등 불빛을 등에 지고 마당을 건너
방문을 열면 언제나 그렇듯 숨막히는 침묵과
견고한 공기가 나를 밀쳐 낸다.
그 불손한 것들을 해집고 TV앞 소파에 앉기까지가
여간 힘이 더는 것이 아니다.
방문을 열면 바로 코앞에 있는 의자인데도
다가가기가 힘이 더는 것이다.
나를 가로 막는 그 침묵과 어둠이 싫어서
며칠 전 부 터는 해질 때쯤이면 작업을 하다 말고
일부러 집에 들러 불을 켜고 TV 혹은 라디오를 켜둔다.
어떤 때는 같이 켜 두기도 한다.
오늘은 불켜진 방에서 TV만 밤을 새워 혼자서 놀고 있다.
두 세 시간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니
재빨리 맥주잔에 소주를 적당히 따르곤 단숨에 들이킨다.
이제 작업이 깊어지는 만큼 감성은 더욱 예민해질 테고
이루어 내는 작업의 성과만큼
외로움의 통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리라.

흥 2006/10/11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잇서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잇서요.
시인들이 노래하는
불멸의 사랑이,
불멸의 정신이

있을 법이나 한 소리 라요.
그런 고귀한 낱말은 애시당시초
우리들 삶 속엔 존재하지도 안 했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것은 전설일 뿐이 라요.
진흙탕 세상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우리네 삶,
그 속에 난무하는 것은,
배신이고
절망이며,
어둠이고
조급함이고
이기심이고,
사악함이며,
식어버린 열정과
무관심과 잊힘.
버려진 사랑이며,
증오의 채찍에
찢어진 등짝,
그 상처 속에 농한
고름덩이의 악취뿐이 라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면
그것은
탐욕의 고통,
포기하지 못하는
희망과
사랑의 갈망이 라요.

아으.....

2006/10/14

작업실에 박혀 있기에는
하늘이
너무 파래요.
하늘이 너무 높아요.
햇살이 너무 좋아요.
지는 낙엽이 너무 쓸쓸해요.

핑계

2006/10/23

비가 밤을 새워 쏟아지더니, 지금껏 멎질 않으니
마음이 산란하다.
오늘따라 평소엔 잘 챙겨먹지도 않는 아침밥이 생각나
동네 설렁탕 집을 다녀 왔는데
텅 빈 식당에 동그마니 홀로 안자 퍼 넣는 국물이
목안에서 모래처럼 까끌그렸다.
돌아오는 길,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와
아스팔트에 흩뿌려진 젖은 낙엽들이,
내 마음처럼 어수선했다.
곧 있을 부산 개인전이 끝나면 집을 챙겨 북경으로 떠나야 하니
작업실 정리도 시작해야 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도
이것저것 꼼꼼히 챙겨야 하건만
마음만 꿀떡 같을 뿐 머칠을 녀을 빼앗긴 듯이 앓아만 있다.
개으름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도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듯이
넋 나간 마음이 영 추슬러 지지가 않는다.
그리다 만 붓도 팽개친 그대로, 작업실 불도 켜 놓 그대로,
모든 것들이 정지된 듯
갑자기 굳게 닫혀 버린 마음의 빗장을 풀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죽 꿈툼 변덕스레 심통을 부리는 마음을 낸들 어찌하겠는가.
이제 비는 멎었으나 매정히 불어대는 바람이
몇 남지 않은 마른 잎들을 흔들어 대니
가지들 마다 겨 우 붙들고 있든
가냘픈 이승의 연을 놓아버리곤 하늘로 날아 오른다.
이 속수무책의 매정한 가을 때문에
되는 일 없이 빗장 텃만으로 술 핑계를 찾는다.

전시를 앞두고,

2006/11/08

그저께 내린 비 탓에
마당의 풀들은 완전히 초록빛을 거두어 들였다.
낮엔 햇별이 좋아 몇 시간을 마당, 산사나무아래 앉아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색 바랜 나무타자 위에 어른거리는
열은 해 그림자가 쓸쓸하다.
저녁 무렵엔 작업실에서
부산 전시에 갈 그림을 고르고 포장하느라 시간을 보내었다.
혼자 하는 일이라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다.

천창으로 스며드는 황혼과 적막감이 싫어서 음악을 듣다.
첼로의 음률에 적막감이 더욱 무겁게 내려 앉는다.
포장할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칠 때 마다
마음은 그림의 풍경 속으로 달려간다.
몽골 평원으로, 네팔의 오래된 사원과 산간마을,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천진한 웃음 속으로...,
그럴 때 마다 일손을 멈추고 하염없이 앉아있다.
이번 부산 전시가 끝나면 집을 꾸리고
베이징으로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처음엔 옆집에 눌러 가듯이 몸만 빠져나가서
홀쩍 떠나버릴 작정이었으나 베이징의 화방을 둘러보곤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놀라서 마음을 바꿔 먹고 나니
그림도구 챙기는 일만 해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여행을 위해 잠시 잠시 작업실을 비운적이야 많지만
1년을 넘게 비워둬야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작업실관리에 대한 걱정과 함께 평소의 나답잖게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괜한 염살까지 부려 보는 것이다.
심지어는 여름철 작업실 마당에 무성할 잡초들도 걱정이고
개들도 걱정이다.
물론 후배가 기거하면서 집을 지켜주기로 하긴 했지만
돌보기가 어디 주인같기야할까?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사서 만들어 보지만
부산의 개인전이 끝나고 나면
마음 단단히 먹고 떠날 채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명예와 치욕에 대하여.

2006/11/09

무거운 짐을 실은 배가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이유가 목적인 항구에 정박하기 위함 때문이라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게 있다면 삶의 바다를 헤쳐 나아가 목적인 바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의 중요성일 것이다. 그 이유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스스로의 삶이 치욕스러울 수도 명예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예로움이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야 할 인생 길에서 스스로의 자존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자가발전적 충전으로 일깨우는 근원적 에너지의 형태이며 사회적으로 치열한 경쟁과 난관 속에서도 유혹과 역경을 뛰어넘어 정당한 대가로 승리의 자리에 섰을 때 관전자들과 경쟁자들이 갈채와 함께 안겨주는 존경과 선망의 월계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가치의 빛이 퇴색한지 너무 오래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목적인 도달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추악해도 일단 정상에 서고 나면 스스로 영광된 자리와 명예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바

라보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간교한 술수로 도달했든, 사기를 쳐서 가로 쳤든, 남의 것을 강탈했든, 스스로 내뱉은 말들을 수없이 부정했든, 지나온 과정은 따질 일이 아니라며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오히려 앞다투어 면죄부를 부여한다. 거기서 따지려 들다간 도리어 낭패 보기 일수인 것이다.

오직 권력과 돈을 쫓으며 먼저 이루어낸 자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존경해 마지않는다. 언젠가는 자신들도 꼭 저 자리에 서고 말리라 다짐하며 부러움과 대리만족에 도취되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양심과 꼭 지켜야 할 규율의 옷을 벗어 던지고 가슴속엔 광기와 탐욕으로 술수의 싹을 키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과정의 물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이다. 정상에 서거나 목적을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지 과정의 부도덕함이나 비열함은 따질 일이 아닌 것이다. 그 속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간교하고 더러운 술수조차도 정당하다는 자기 변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치욕과 명예가 자리를 뒤바꾼 지 오래이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갈등 없이 영위하려면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군네 나는 사전적 의미의 " 명예로운 삶 " 은 결단력과 단호함으로 재빨리 폐기 처분해 버리고 신 개념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생각이 바뀌어야 새 세상이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별 갈등 없이 잘 살아가는 나 역시 이미 체질 개선이 다 된 때문일까?

떠날때는 휘리릭.

2006/11/28

어젠 늦은 밤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웠다.

작은 불씨가 조금씩 번지며 천천히 일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엔

불꽃가루가 치솟아 오르며 맹렬히 타기 시작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넘실거리는 불길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들었다.

며칠째 작업실물건들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는 동안은 담담했으나

정리와 청소의 마무리 단계에서 행해지는 쓰레기를 태울 때야 비로소

잊고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난 듯 불현듯이 마음이 싸 해진 것이다.

불길이 잦아들 무렵 빗방울이 후 두둑하여 잘됐구나 하고 작업실로 들어갔다.

17년 동안 대청소라고는 해 본적이 없었던 개으름 탓에

청소가 끝난 작업실은 화안하고 반들반들한거씨 나의 작업실 같지가 않았다.

캔버스들 마저 죄다 벽 쪽으로 돌아서 앉은데다

물감이고 붓이고 몽땅 북경으로 보내버렸으니

텅 빈 것 같이 더욱 낯설어 보이는 작업실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드는 마음이 종일 지척 이는 겨울 비 탓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틀 후면 북경에 있을 테니 그 동안 쌓아온

양평작업실과의 정분은 당분간 끊어버려야 한다

삶은 떠남의 연속. 생은 미지의 문을 향해 뻗친 수도 없는 갈래 길.

지칠 때까지 떠나고 쓰러질 때까지 열고 또 열어야 할 미지의 문들.

관 뚜껑에 대못이 박혀 도저히 팔을 뻗칠 수 없을 때까지,

관절에 구더기가 들끓고, 무릎 연골이 썩고, 눈알 속으로 나무뿌리가 자리를 잡고,

정강이빠마져 삭아버려 도저히 일어설수 없는 최후의 순간까지,
 떠나도 떠나도 또 떠나야만 하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우리네 삶의 길.
 그냥 마실 가듯 휘익 떠나버리면 될 일이다
 팬시리 의미부여를 하며 심각해 진다.
 밤을 지새다 시피 한 새벽엔,
 늘 보는 풍경이었으나 달라진 감흥의 우울함으로
 비에 젖어 을씨년스런 창밖 정원을 내다보았다.
 낮엔, 개들에게 밥을 주면서도 후배에게 마 끼고 가야 할 처지를 생각하니
 눈빛이 애처로워 보여서 마음이 불편하였다.
 영영 떠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웃나라로
 작업실을 옮기면서도 이렇게 감상에 젖어서야 원!
 나는 항상 첫 시작이 어렵다.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서운 속도로 적응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시작이 힘이든 것이다.

베이징에서의 첫경험.

2006/12/08

작업실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단단히 다지고온 각오와 긴장감이 몸에서 다 빠져 나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변수들이 많아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질 않아 처음 2,3
 일은 답답하였으나 불확실하고 느려터진 이곳에 적응하려면 나 자신도 무대책의 호흡법으로
 숨을 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바쁜 마음을 접고 앞뒤 순서없이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
 동하려 마음을 고쳐 먹는것이다. 그렇게 북경온지 1주일을 할일없이 지나 보내었다.

'이곳에선 되는일도, 안되는일도 없다'는 유 경험자의 충고를 교훈 삼아 조바심을 떨쳐버리려
 노력하는 사이 엉거주춤하고 모호하게 지나가버린 시간들. 그 이유 때문에 겪는 심리적 불안정
 함과 혼란스러움.

그런것들과 맞물려 북경의 첫느낌은 그리 좋은편이 아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기대로 이곳에
 온것은 아니지만 어느곳이든 사람이 사는곳이라면 첫인상이 그곳 사람들과의 만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이니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사이에 내가 만난 몇안되는 사람들에게서
 느낀 감정이 그리 좋지않다는 말이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사람들과의 만남이야
 좋든 싫든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나 교포들을 대하면서 실망스러웠다는 말이다. 한
 핏줄이라는 연대감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선의의 바램으
 로 일거리를 마끼기위해 교류하면서 조금씩 석연찮고 불유쾌한 느낌이 들기시작한 것이다.

북경에 오기 전 누군가가 충고한 말에 대꾸도 없이 말자체를 일축해 버렸든 일이 새삼 떠오른
 다. 그 말의 내용인 적선 "중국인들 보다 조선족을 조심하라"였으니 나의 정서상론 받아들이
 기 힘이든 것이었다.

대를이어 중국에 살면서도 완전한 중국인도 아니고 조국에서도 찬밥신세인 이들, 부평초 처럼
 뿌리없는 소수민족으로 척박한 환경을 떠도는 동포들을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처음부터 경계
 대상으로 낙인을 찍다니! 그런데 북경에온 이후로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씁쓸하고
 스글픈 마음이 더는것이다. 그런데 그네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원인을 추적 하고 분석 해보면
 그이유가 다름아닌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영향받은 결과임을 금

방 눈치챌수있다.

여행중 간혹 마주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서 목격되는 낮떠거운 행동들, 거드름과 업신여김, 부의 편중으로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천박한 일부 사람들이 대하는 행동과 돈 세레속에서 이들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수평적 교류가 아님을 금방 알아채곤 마음의 문을 닫고 만 것이니 이들에게 한국사람들은 오직 돈을 뜯어내기 위한 표적으로 전략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것이다. 그돈은 우리들에게서 당하는 모멸감과 불쌍사나온 꼴들을 참고 봐주는 대가인 셈이니 미안한 마음 또한 갖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그렇게 당해도 쌀만큼 유치하게 행동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릴때 부끄러워지는것은 당연 지사이고 답답하기까지한 이유는 궤도를 수정하기엔 서로가 희망의 출구에서 너무 멀리와 버렸다는 생각때문이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가는곳마다 막가파처럼 행동하며 이렇게 끔직한 파멸의 길을, 벼랑끝을 걷는듯 아슬아슬하게 가야만 하는것일까?

이곳에 있으니 나라야 망하든 말든 아귀다툼으로 피튀기는 바슬아치놈들과 그들의 편가르기 흥계에 놀아나는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안봐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더니 이곳마저 발길 닫는곳 마다 몇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으쓱되며 부정적 흔적들만 남겨 놓으니 그렇지않은 사람들 마저 선의의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우리는 싫든 좋든 한 배에 실려 망망 대해를 대책없이 떠도는 대한 민국의 끔직한 가족.

공공,

2006/12/17

난 아프다. 이렇게 빈 둥 될 때는 몸통이라도 아파야
자신에게 덜 미안하다.

밤이 다 새도록 물을 들이키고 누런 가래를 뱉어낸다.

몸은 닫는 곳마다 쓰라리다.

어제는 종일 침대에 누워 지독히 불어대는 바람소리를 들었다.

거친 바람은 침대 속으로 파고들어 삶의 꿈무늬에 매어 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것들을 끈질기고 모멸 차게 떼어내서
내 삶의 뒤편길로 쏜살같이 날려 보낸다.

때어내도 때어내도 칠면조 모가지에 치령대는 벼슬처럼
철새 없이 돌아나는 독의 싹들. 침대 속으로 끝없이 파고드는 바람.

이러다가 뼈 속까지 바람구멍이 들것이다. 아! 아! 아파라.

아아 아파라. 부어 오른 목에 달라붙은 점액질이 떨어져 나가기 싫어서
노쇠한 용가리의 울음처럼 그르릉된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아무것도 태울 수도 녹일 수도

데울 수조차 없는 미지근한 열기에 깜박 초점을 잃은 눈,

컴퓨터 좌판의 글씨만 잠시 그물거리다 만다.

항문으로도 열기가 쏟아져 나오고 땀구멍으로는 땀이 솟는다.

눈앞에는 블랙홀 같은 검은 아가리가 끝도 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빨아당길 듯이 어른 그린다.

태풍이 몰아치듯 이렇게 며칠을 앓고 나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 질것이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른다. 아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휴우, 2006/12/19

양평 작업실에서 었더라면 땀에 젖은 침대보를 몇번 갈았음직한 이번 감기몸살은 이제 물러날 참인지 오늘 아침엔 몸이 한결 가볍다.속이쓰려 물이라도 마실 요량으로 일어났는데 쓰린속외에는 새벽마다 불덩이같던 몸에 열도 내렸고 내의도 젖지 않았으니 진땀도 흘리지 않은것이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애라 모르겠다하고 퍼마신 술 때문에 잠들기 전 까지는.취중에도 병이 더 악화되고 말리라는 공포감이 있었다.무대뽕 성격이 앞뒤 생각없이 저지른 일이지만 어쨌든 전화위복이 된 셈이니 다행이다.아직은 미열이 남아있고 기관지도 부어있는 상태이니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며칠더 몸을 추스려야할것이다.지금은 이른 시간이라 조용하기 그지없는 창밖을 내다본다.어둠속에서 이따금씩 자동차불빛이 보인다.북경의 어둠은 참 길기도 하다.아침이면 침대에 누운채로 몇번씩 다시 잠을 청하며 해떠기를 기다리니 도둑 고양이 같은 이짓도 더는 못할것이다. 행여, 곤히 자는 주인집 식구들 단잠이라도 깨울까하여 조심스러운것이다.수십년을 혼자 생활해온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도 하고 눈을 떠 있을때는 밤낮없이 바스락대며 무엇이든 저질러야하는 성격이라 갑갑하기가 감옥같다.몇가지의 편리함을 얻은 만큼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셈인것이다.요즈음은 점점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으니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보고 결정을 할 일이다.

오늘, 2006/12/28

아침엔 모처럼 방안으로 햇살이 밀려 들었다.
하숙집 방 창문이 정동쪽으로 나 있으니 해가 떠 오를 때는 아침노을의 붉은빛이 책상 앞 벽을 물들이다가 눈부신 햇별이 방안 깊숙이 밀려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햇살을 볼 기회란.....글쎄..... 기억이 까마득할 만큼 북경의 매연은 심각하다.
잠시 나갔다 돌아와 손을 씻어도 시커먼 구정물이 나올 정도이니 첨엔 이 공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간사한 몸이 너무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서 검은 썩을 정도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한국 있을 때도 잘 안 씻긴 했지만 이곳에 온 후론 씻어도 표시가 없으니 더 잘 안 씻게 된다는 말이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밤사이 머리카락 속에 새들이 몇 마리나 들어앉았다 간 듯이 부스스 한데 세수할 때 뺏친 머리카락을 물 칠로 대충 눌러노코 마는 것이다. 북경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왜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이해가 갈 때쯤 내 머리카락도 이미 그들을 담기 시작한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아예 감지를 얹는데 이유가 복이 나가기 때문이란단다. 물이 귀한

북경에서 그릇듯한 속담 아닌가. 집 구조가 입식이라 썰렁해서 실내에서도 외출복을 그대로 꺼 입고 있으니 더 잘 안 씻게 되는 것이다. 물론 물세절약도 중요한이유일것이다. 아파트일 경우엔 온수는 값을 더 쳐서 내야한다.

이곳 사람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낭비와 허영이 많은 나라인지 부끄러울 정도이다. 종이박스 하나라도 모아다가 내다 팔고 비닐봉지 하나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 빈병은 물론이다. 그것은 생활의 습관이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지 부의 편중문제가 아니다. 근검절약은 아무리 실천해도 해 될 것이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지 않은가. 그런데 언제부터 망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일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한겨울 실내에서 한여름 복장으로 지내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

각설하고, 어제도 한차례 중고 시장에 들러 필요한 비품들을 몇 개 더 샀다. 청소기랑, 수납장 이랑, 물감 담을 수레랑, 쿿션있는 의자랑, 온수기는 새것으로. 쿠션의자를 고르는데 옆에 섰든 하숙집 주인 녀석이 “선생님요! 체면이 있지 이거이 너무 낡은 거 아니라 요?” 한다. “그래? 그라마 니가 함 골라봐라” 신이난듯이 이곳 저곳 살피더니 구석에서 하날 골라 내는데 내가 고른 것 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 “선생님! 이거이 어때요?” “음! 내보다 눈이 낫네!” 한마디의 칭찬에 금방 입에 미소가 가득해진다.

젊은 녀석의 이북 사투리 억양이 참엔 생경하더니 자꾸 들으니 얼마나 곱살맛고 정겨운지, 우리는 이미 쓰지 않는 고어들, 요즘은 제법 친해졌는지 일 없는 날은 “선생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같이 사러 갈까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넨다. 직업이 관광 가이드라 한국 관광객들의 행동에 익숙한 만큼 처음 나를 대할 땐 봉을 만난 듯 하였다. 어떻게 하면 바가지 쥘워서 한 푼이라도 굶어낼까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같이 다니다가도 “여기는 기름 맛 사지 해주는 곳이래요,” “여자들 젓탕이 다 내놓고 몸에 기름 발라서 문질러준대요”. “저기는 술집인데 예쁜 아가씨들 많아요 팁은 00래요” “저기, 사우나는 몸만 씻는 데는 00원 이 구요, 안에 다 있어요, 전신 마사지, 발 마사지 다 있어요” 하며 관광객들이 원했음직한 코스를 의기양양하게 늘어놓는 것이다.

그런 곳에 사람들을 다리고 가면 업주들이 찢러주는 부수입 또한 만만치 않았을 텐데 내가 아예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 시큰둥해 지더니 언제부터인가 아예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 틈에 나도 이야길 꺼집어 내도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굳혀둔다.”oo 아! 잘 들어라, 나는 관광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서 1년 살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 돈 뿌리며 즐기고 댕기는 관광객 상대하듯이 날 대하면 안돼. 알것냐?” “예, 알가슴네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관계를 개선시켜 간 것이다.

그러든 중 며칠 전에는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잠까지 못자 죽을상을 하고 있으니 보기가 딱했든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 집어낸다. “저..선생님 우리아파트 단지 안에 동네주민들 가는 마사지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가격도 싸고요 몸이 너무 힘들 땐 받아보면 좋아요.” “음!..함 가보까?” 둘이 집을 나서니 바로 옆동지하에 안마 시술소가 있었다. 1시간 동안 발지압을 받는 것인데 피로하고 몸이 무거울 땐 받아볼 만하다. 그날도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중국에는 피로 풀기와 치료를 위한 마사지가 거의 생활화 되어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들락대면서 퇴폐의 감성을 가미 시켜놓고 가격 또한 올려 놓은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우리 민족 따라갈 나라 또 있을까. 작업실 입주에 차질이 생겨서 지겨워 하고 있으니 처음엔 몸에 벤 직업관 때문인지 늘 가이드 해왔든 관광객과는 뭔가 달라 보이는 나를 즐겁게 해줘야겠긴 한데 감을 잡을 수 없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더니 이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파악한 것

이다.

저녁 먹은뒤 동네 산책하기, 제례시장 구경하기,초등학교 1학년 딸래미 미흥이랑 놀기, 자신의 고향 장백산 이야기듣기 등. 그 중에서도 가보지 못한 장백산 자락의 마을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들개 이야기며, 산천어 낚시 이야기며 한쪽마을 오리, 닭서리 이야기할 땐 가슴마저 두근거렸다. 그렇게 특별한 취미 때문에 비워 맞추려고 신경쓰야 할 일이 없는 나의 실체가 파악되자 경직돼 있던 얼굴의 안면 근육도 풀리고 날 볼 때 마다 싱글벙글, 내가 웃으며 농이라도 한마디 던져주고 나면 더욱 신이 나서 좋아한다. 계산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제는 아주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시장을 돌며 솔선해서 물건값을 흥정해 깎아주고 너무 비싸게 부를 땐 사지 말라며 말리기도 하였다. 작업실에 나를 다려다 주고는 어서 돌아가서 너일 보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도우며 가지 않는 것이었다. 관광객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며 카페노래모음 씨디를 선물이라며 줬다. 듣지 않는 노래였지만 마음 씩씩이가 고마워서 받아두었다. 이제 나를 편한 이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선생님!” “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중국화가들 공작실보다 선생님 공작실이 최고래요, 잘은 모르지만 뭐이가 달라요, 중국 화가들 말하는거이하곤 선생님은 뭐이가 달라요” “그래?” 처음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중국 작가들 작업실을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따라 다니면서 이곳에서 잘나가는 작가들의 작업실을 꽤 많이 본 것이다.통역을 맡았으니 이야기도 많이 해본 셈이다. “너, 이제 집에 안 갈 거냐?” “방해 안되면 좀 더 있다가 선생님 모시고 갈래요” “미흥이 학교서 다리고 와야잖아?” “걱정 아이해도 되요, 방금 마누라한테 대신 다리고 오라고 전화 했어요!”

허어 참! 난 청소 해놓고 앉아서 모처럼 음악도 좀 듣고 작품 에스키스나 하다 갈까 하고 있었건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 것이다. 날 배려한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 일을 포기하고 만다. “그래 그래 차나 마시고 좀만 더 있다 가자!” 덕분에 느릿느릿 흘러나오는 카페노래만 실컷 들었다. 특별 배려로 날 위해서 틀어 놓 노래이니 참고 들어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다.

그래, 그림이 별 거냐!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고 스스로 위로 하면서도 좋아하는 음악에 묻혀 작업구상하며 시간 보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웠다.

잘 가요 !

2007/01/02

겉으로야 표현 안 했지만 이번만큼은 잘 해 보겠노라고

정말 성실히 당신을 대하겠노라고

넘치는 의욕과 단단한 다짐으로 맞이했던 님.

그 님이, 방금

되돌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가슴으로,

달빛 속에 희끄무레한 눈발을 지나

어둠의 장막 속으로 잠겨 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며칠째 허겁지급 쓰잘때 없는일에 시간과 넋을 빼앗기느라

님과 마지막인 너무나 명백한 이 순간마저
깜박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늘 그래왔듯이,
당신의 뒷모습에 이별을 고해야 하는 쓸쓸함.
얼음처럼 차갑고 너무나 단호하여
결코 되돌아 보는 법 없는 당신의 완고한 등판.
지나온 것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의 깊이만큼
당신의 그 단호함이 나에겐,
반비례의 매정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인간들의 이기심이 뺄어놓은 온갖 궂은 것들,
허접쓰레기가 되어버려 치렁치렁한
시간의 껍질들을 다 거두어
깊어지고 떠나가는 당신의 뒷모습 바라보며
밀려오는 회한으로 이별을 고합니다.
비록 순간일지라도
당신의 존재마저 잊고 지냈든
망각과 개으름의 시간들이 새삼 떠오르며
부끄러움이 송곳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벌써 저만치 떠나가는 님,
이미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묻혀버린
당신의 완고하고 단호한 등판을 떠올리며
평계와 변명의 유혹에 놀아나느라 낭비해 버린
헛된 시간들에 대한
때늦은 자책감으로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막연한 기대감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설래 임만으로
맞이하는 새님 앞에선
물론 새로운 각오가 우선해야 겠지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당황스러움이
상투적 맹세나 다짐보다 위선적이지 않아
자신에겐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랬듯,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새 님과는
저 또한 서둘러 미리 내세우는
각오나 다짐 없이 잘해 볼 랍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
북경의 한해는 그렇게 보내 볼 랍니다.
잘 가세요 2006년이여!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삶은 선택이다.

2007/01/03

우리의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것들은 거의가 트릭이고 정치적 연출이다.

보이는것의 뒤쪽 , 가려진 이면을 예술가는 직시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노할 줄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달콤하게 포장된 겉을 원하느냐,

포장속에 담겨진 진실을 원하느냐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각자 삶의 길이다.

어느것이 더 가치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세상의 몫이다.

작업실에서

2007/01/03

오늘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페인트가게에서 캔버스 바탕용 본드랑, 칠할 때 쓸 도구를 산다. 본드 하나라도 우리나라 것과는 다르니 꼼꼼히 물어보고 잘 골라야만 한다.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목공용 본드도 회사와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질 또한 천 차 만별이다.

물건 살 때 거들어 주러 따라온 하숙집 주인녀석이 심각하게 이것저것 살펴보고 각기 다른 회사 제품들 마다 적힌 용도를 읽어보느라 끔뎀 된다. 그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사는 동안 세밀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선생님 칠한 뒤 나중에 딱딱한 거이는 아이 되지 않소? 나중에 그림이 부서지면 아이되지않소?”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물어 보는데 반 전문가처럼 정곡을 찌는다. “그럼 그럼, 그러니 신중히 골라야 돼!” “알가슴네다” 마음썸썸이가 고마워 등을 두드려준다. 아들녀석 나이보다 한살 많으니 아들이나 조카대하듯 하는것이다.자신도 그게 좋다고 했다.

작업실로 오는 골목어귀 빵 가게에서 김이 폴폴 나는 만두를 두개 산다 어른 주먹만한 것 2개에 1원 우리 돈 130원이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며 먼저 한입을 베어 문다. 나도 뒤따라 한입 베어 무니 만두의 찝조름한 속과 구수한 냄새가 입안에 가득 찬다. 나를 태워다 주곤 뭔가 더 도와주고 싶어 멍기적 되는 녀석을 등을 떠밀다시피 돌려 보내곤 바탕 칠할 준비를 한다. 바닥에 캔버스를 늘어놓고 맨 천 위에 본드를 칠하기 시작한다. 잠시 칠한 것 같은데 벌써 해는 기울어 저녁노을이 앞집 지붕 끝에 조금 묻어있다. 음악도 멎은 지 오래, 바탕 칠하느라 등에 배인 땀 땀에 감기가 들까 얼른 옷을 하나 더 꺼 입는다. 지난번 감기 몸살로 혼절이 난 이후론 매우 조심을 한다.

맨 천으로만 씌워진 캔버스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몇 년만일까? 한국에서는 시간 아낀다는 핑계로 다 만들어 놓는 것을 화방에서 사다 썼는데 이곳에서는 완제품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직접 만들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칠하기가 귀찮아 사람을 구했으나 모든 것이 느려터져서 아예 나타나질 않으니 오늘 아침, 갑자기 직접 칠을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이다. 물론 큰것들은 기술자들이 와서 해결해야할 것들이지만 작은것들은 스스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은것이다.

칠을 해보니 일차원적인 노동의 즐거움이 있다. 아무 생각 없는 무심한 붓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고 창밖에 흐르는 해질녘의 푸른빛 적막을 바라본다. 그 빛에 마음이 시리다. 다시 음악을 틀고 불을 켜고 차를 또 한잔 마신다. 온몸에 번지는 온기. 낮에 오기로 약속한 캔버스 천을 마저 매어 줄 사람은 아예 안 올 모양이다. 매다만 몇개남은 틀만 덩거마니 벽에 기대어져서 그를 기다린다. 이곳에선 우리나라에서처럼 약속 시간을 중시하고 기다리다 보면 혈압이 올라 뒤로 나자빠지는 수가 있다. 이럴 땐 그러려니 하고 잊고 지내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나타나는 것이다. 며칠만 더 캔버스 만들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을듯하니 마음은 더욱 차분히 가라 안고 기운은 충만 하다.

내가 화가가 아니었다면 무엇으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내가 화가가 안되었다면 무엇으로 내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었을까? 또, 태생적 분노는 어디로 표출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화가가 된 것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인 것이다.

화가의 길에 대해 지금껏 단 한번의 갈등도 없었다면 사람들이 믿어 주거나 할까?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는 작업실에 불을 켜고 캔버스 위에 다시 한번 덧칠할 준비를 한다. 얇게 여러 번, 칠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바탕이 탄탄해지고 붓질할 때 감이 좋기 때문이다.

경2007.1.9.

2007/01/09

그 동안 에스키스만 준비해 오다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본격적이라기보다는 계획한 본 작업을 위한 준비운동쯤으로 생각하면 될성싶다. 아직 큰 화폭들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지 못해 우선 작은 화폭에 그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작다고 해도 200호이니 한국에서는 큰 작품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작은 화폭으로 취급해 버리는 자신이 시건방져 보여서 피식 웃음이 낫다.

아무튼 작업은 이제 시작 되었고 종일 화폭에 매달려 그리기에 열중하는데 첫 느낌이 좋았다. 한국작업실에서 하는 작업과는 달라서 아예 앉아서 그릴 생각을 말아야 하니 하숙집으로 돌아올 때쯤엔 몸이 파김치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래도 피로는 달콤하고 가슴은 보람으로 충만 되어있었다.

모든것들이 순조로우니 한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그것은 잠자기이다.잠!. 밤에 잠만 좀 편히 들면 좋겠으나 그게 뜻대로 되질 않는다. 늦게 늦게 겨우 든 귀한 잠마저도 꿈에 빼앗기기 일쑤이니 새벽빛 속에 일어나 앉으면 머릿속은 온통 두통으로 육신대는 것이다. 오늘아침도 예외 없이 두통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

잠만 좀 편히 들 수 있으면 내 삶에 더 바랄게 없으련만, 늘 모자라는 잠 때문에 안그래도 예민한신경이 더 예민해 지는 것이다.

따산츠

2007/01/12

사진: 따산츠의 어느 화랑앞 공터에 버려진 폐차. 이쁘게 봐줘서 설치미술이라 쳐도 그 풍경

은 어슬프고 너절하기 짝이 없다. 그 뒤에 세워진 벤츠와 자본주의 문화의 꽃인 상업화랑과 폐차된 트럭, 이 풍경을 통해 오늘 중국의 현실을 읽어라고 말 한다면 내가 너무 경솔한 것일까?

중국 정부가 예술특구로 지명하고 지원하는 북경의 파산츠,

수십 년에 걸친 체계적인 투자로도 쉽게 이루지 못할 일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별 노력없이 이루어낸, 그것도 세계적 화랑들이 이례적이랄 만큼 스스로 찾아와서 투자하고 알아서긴? 그래서 세계 미술시장에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시간 내에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한 북경의 파산츠.

뽕 튀기 된 소문에 기대어 들 뜬눈으로 막연히 바라보는 모습(처음엔 나도 그랬다)과 실제의 모습에는 차이가 많다. 뭐랄까? 설익고 정돈 되지 않은, 물론 화랑들이 엄청난 규모로 운집해 있고 많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로 실망해 버리고 말 만큼 전시된 대다수의 작품들이 형편이 없다.

세계적으로 뒀다는 작가들의 작품들도 걸맞은 수준에는 미달이다. 그렇다고 아예 형편 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속셈의 천박한 속이 다 드러나 보일 만큼 너무 과대 포장이 되었다는 말이다. 어느 면으로 살펴 보아도 아직은 분위기나 토양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다.

막가는 상흔의 노골적인 음모에 대해 비판 세력이 없다는것이 너무나 이상할 뿐이다. 물론 당사자들인 중국의 미술판이야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의 상업화랑들이야 어차피 배추장사치들 수준을 벗어난적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 쳐도 비평가들까지 덩달아 침흘리며 춤을 춰대는 꼬락서니란, 두눈떠고 못봐줄 정도이다. 한국엔 정말 이놈들 만한 작가가 없는것일까? 녀의 밥그릇이 커보이면 지먹든 밥그릇은 아예 팽기쳐버리고 부스러기라도 좇아먹겠다고 침범벽으로 달려들어 오졸도 없이 설치되는 대한 민국의 미술판에 희망이라는것이 있는것일까?

지난번에 만난 중국의 젊은 비평가 한사람이 이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제법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비 전문가의 통역 수준을 감안 하더라도 크다란 덩어리는 이렇다 "한 작가에게서 생산되어 나올수있는 작업의 양에는 한계가 있는법이지요. 그런데 요즘 떠는 작가들의 작업양은 그 몇배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산 라인을 갖춘 공장처럼 여러사람이 달라붙어서 작품을 완성해낸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작업들도 수준 미달이에요, 중국엔 그런 작가들 보다 더욱 진지하고 좋은 작가들이 있어요"

대필? 설치나 입체, 혹은 대형 벽화일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화가의 섬세한 손놀림이 화면을 지배해야할 그림일 경우는 밑 그림의 과정외에는 대 필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수없는 일이다. 내 생각이 너무 아나로그식인것일까?

대포알마흔한발장전

2007/01/16

우여곡절 끝에 1월 14일인 오늘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11월 29일 북경에 도착, 다음날로 시작한 작업실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즈음에 마침 가져올 수 있도록 화폭 틀을 주문할때까진 좋았으나 짜 놓은 계획들이 하나둘 꼬이고 늘어지기 시작하더니 걸잡을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 든것이다. 화폭만 하더라도 틀따로 천썰우기따로 밀칠 따로 각기 사람들을 구해야하는데 문제가 여간 복잡한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마디의 말도 통하지 않는 생면 부지의 사람들과 이곳 생활의 방식 또한 전혀 상상조차 해보

지 못한 터라 몇 번씩의 약속핑크에 처음엔 황당, 당황 그 자체였다. 일 테면 “예! 내일 아침 꼭 가겠습니다.” 혹은 “인부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시간과 약속이 정해지면 다음날의 일 순서와 계획을 짜놓고 일찍 작업실에 나와서 기다린다. 해 질 때까지, 혹시하고, 늦은 밤 집에 갈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그렇게 종일을 헛된 시간으로 낭비하는 것이다. 황당한 마음에 화를 참고 다음날 통화를 시도하면 연락 두절 상태다 며칠후 어렵사리 전화가 연결 되면 “오늘 오후에는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다. 그리곤 함흥차사 이다.

그런일들이 몇번 겹치면서 하숙집 주인 녀석에게 통화를 부탁하기가 민망해 저서 결국은 일 자체를 포기하고 마는것이다. 그렇게 부 대끼면서 이곳 문화의 생리를 눈치 굶고 보니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나 또한 경험적 본능으로 재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니 앞이 보이지 않든 일들이 느릿느릿 꾸물 꾸물.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 달하고 15일만에 작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그럭 저럭 끝이 난 것이다.

어쨌든 그사이에 내 몽골로 여행도 다녀왔고 에스키스도 많이 쌓였고 강아지도 한 마리 구하였으니 이제 스을슬 작업만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모처럼 음악도 쿵쿵 틀어놓고 마음의 여유를 즐긴다. 이번 주 말쯤, 작업을 위한 자료 수집차 난 징을 거처서 남쪽을 한 바퀴 휘익 돌고 난 후부터 작업에 매달릴 생각이다.

몇명이 달라붙어 땀을 흘린 보람으로 작업실 벽면에 튼 실 땡 실하게 쌓여있는 화폭들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보무도 당당한 방위군 출신답게 능름한 기상으로 대포알 일발을 장전하까? 마까? 하까, 마까? 속으로 초 읽기 장난을 한다.옛말에 하든일도 멍석깔아주면 멈춘다 더니 큼직 큼직한 화폭들이 벽을 꽉 매우도록 차 있으니 마음이 갑자기 느긋해 지는것이다. 인간의 간사함이라니.

대포알

250 x 500cm 다섯알
210 x 450cm 다섯알
210 x 300cm 다섯알
180 x 250cm 열알
140 x 180cm 열알
112 x 162cm 세알

섬에 대하여.

2007/01/22

작업실은 섬 같다.

스스로 갇힌 고립무원.

나를 내려 놓고 돌아가는 차 꿈무늬를

흘깃 바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몇 해 전

남시하는 친구 따라 무인도에 갔던적이 있다.

나룻배가 넘실대는 파도와 싸우며

신고 온 낚시꾼들을
여기저기 저마다의 섬에
어렵사리 내려놓곤
황급히 떠난다.
우리는 섬의 허락도 없이 주인이 되어
친구는 낚시를 하고 나는
낚아 올린 고기를 안주 삼아
소주를 몇잔 들이키곤
뚜렷히 바라보는 것도 없이
뚜렷히 생각하는 것도 없이
넋을 놓은 듯이 마냥 앉아있었다..
낚시를 하다 말고 친구가 묻는다.
“야! 이사라마 안 심심하냐?
낚시대 하나 주께 함 낚아볼래?”
“...으응...안 심심한데,
내 신경쓰지 말고 낚시나 해!”
“ 허 참!”
해가지자 어둠에 묻힌 밤 바다에
별이 쏟아져 내리고
갈매기의 날갯짓을 따라
푸른빛 새벽이 왔다 가고
아침노을에 반짝이는 황금물결을 해치고
다가오는 나룻배를 바라보며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하룻밤을
아쉬워한 기억이 있다.
스스로 선택한 고립 무원에서
오히려 안도하고 편안했던 시간들.
언제인가 이곳 북경의 작업실 문을 열면서
그때의 그 섬에 첫발을 내딛든
감흥이 떠 오른 것이다.
오늘도 그 섬에 첫발을 딛듯이
작업실로 들어서면
블라인드 사이로 비춰 든
아침햇살에 고립무원의 실내는
화안하고 따듯하다.
음악을 틀고 몽실이에게 밥을 주고
도시락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옷을 작업복으로 바꿔 입고
차를 마신다.
그렇게,
세상에서 고립되기 위한

담 쌓기준비를 하는 것이다..

에해라,모르게따.

2007/02/08

요 며칠은 내가 미쳤지 싶다. 작업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후다닥 몽실이 아침밥 주고, 작업복 갈아입고, 쉬는시간도 없이 캔버스에 붙어 서선 진종일 떠날줄을 모른다.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실내가 어둑어둑하다. 불을 켜고 몽실이 저녁밥을 주고 또 다시 캔버스에 달라붙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씨름을 한다.

뭔가 머리가 복잡하든지 잊어버리고 싶은게 있을땐 늘 상 버릇처럼 하는 짓거리이니 뭐 특별할것도 없지만 워낙 큰 캔버스라 에너지 소모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식은땀에 가쁜 숨 몰아쉬며 가래끓는 기침에 허리가 굽고 산소 부족으로 두통이 와도 그 짓을 멈출 수가 없다.

하숙집에 돌아오면 몸은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있으나 머릿속은 그렇지가 못하다. 우라질! 몸과 정신의 박자가 척 척 맞아주면 얼마나 좋으랴.일심 동체라는말 누가했노? 함 나와바라! 가누지도 못할 몸으로 잠을 기다리며 서성이노라면 명백하고 단순한 생각들 마저 복잡하게 뒤엉켜서 머릿속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러다가 내가 미치지. 그럴 땐 빼갈을 맥주잔에 반쯤 부어서 단숨에 들이키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몽롱,해롱, 몽실,가물...에해라 모르게따.

떠남과 돌아옴.

2007/02/16

3개월 만에 돌아온 한국은 떠날 때처럼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다. 집에 잠시 들렀다 찾아간 인사동 역시 그대로다. 고작 3개월 만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 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촌놈처럼 두리번두리번 살피며 걷는다.

사비나 미술관에 들러 반갑게 맞아주는 미술관 식구들과 잠시 서로 안부를 묻고 저녁 녀엔 지기들과 만나 맛난 홍어회와 막걸리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정겨운 담소로 늦게 까지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아쉽게 헤어진 다음날 아침, 일찍 나서서 찾은 양평 작업실 역시 그대로이긴 하나 느낌이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묘한 것이다. 오랫동안 여행을 위해 떠났다 돌아오는 것이나 북경에 살러 갔다가 잠시 들리는 것이나 떨어져있다가 돌아오는 것은 매 한가지인데도 감흥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작업실 마당에 들어서자 후배의 보살핌으로 살이 오른 개들이 처음엔 상황파악을 하는 듯 잠시 멈칫하며 내 쪽을 바라보다가 멀리서 주인의 모습이 확인되자 반가움에 갑자기 이리저리 날뛰며 난리 법석이다. 개집쪽으로 다가가자 진주는 성격대로 반가움을 조용하고 깊게 표해왔고 뭉치는 여전히 쾌활한 응석받이로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치고 통통해진 미키는 짧은 다리로 철망에 매달린다. 식당에서 남겨온 고기를 나이순대로 몇 점씩 나눠주자 서로 예쁘게 보일려고 차례를 기다리며 받아먹는다.

주위를 휘 둘러보니 18년 동안 한결 같고 익숙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작업실로 들어서자 떠날 때 완 너무나 달라진 실내 풍경을 마주하며 처음엔 잠시 어리둥절하다. 작업실을 만들고 부터 지금껏 단 한번도 남의 손에 맡겨본적이나, 침범 당해본 적이 없었던 내부가 후배의 사

진스튜디오로 바 껴있으니 묘한 기분이 든 것이다.

말기고 떠날 때 속으로 대충 짐작은 했지만 상상해본 것과 실제의 풍경엔 엄청난 차이가 있었
든 것이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차이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일단 모든 것을 마낀 이상 후배는 후배대로 자신의 편리함을 도모해야 하
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의 일이 다르니 분위기 또한 확 달라져서 생경한 풍경으로 다가옴
이 당연한 것임에도 순간적으로 내 작업실이라는 관념만으로 바라보며 착각을 했든것이다. 이
미 서로 의논을 거친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는 사이 양평의 밤은 깊어가고 삼 개월만에 맛 보는 밤공기는 차고 신선하다. 마당에 내
려서자 하늘엔 북경에선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하다. 며칠 후 다시 떠나면 한
동안 보지 못할 이 찬란한 별들. 북경에서 쌓인 폐 속의 먼지를 씻어낼 듯이 신선하고 시원
밤공기를 깊게 들이마신다.

3개월이란 적잖은 시간 동안 북경에서 일어났고 경험했던 일들을 되새겨 보며 앞으로 해 나가
야 할 일들을 위해 마음을 제 정비한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떠난 것이니 복잡할 것
없이 사사로운 집착을 버리고 좋은 그림을 위해서 매진하면 되는 것이다.

삶과 그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며 때론 고개를 흔들만큼 혼란스럽
기도 하지만 그 속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세상 바라보기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옛날,옛날,

2007/03/03

옛날 하고도 아주 옛날,

만물이 평등하던 시절 지구별 어느 곳에,

바위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대요.

바위동네는 더 넓은 평원의 중앙,

사방으로 시야가 탁 터진 자리에

코뿔소의 뿔처럼

가파르게 우뚝 솟은 민둥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대요.

겉보기는 멋져 보였지만

동네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서

낮에는 태양의 열기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밤이 되면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는 일교 차 때문에

다른 생명들은 살수조차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

단단함이 생명인 바위들 마저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밤이면 찌렁! 찌렁! 하고

바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넓은 들판을 메아리 쳤대요.

일설에 의하면 그 소리는 기온 차이 때문에

바위에 금이 갈때 나는 소리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대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바위들의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극심한 일교차뿐만이 아니라
여름엔 더욱 뜨거워진 태양의 열기에
온통 몸이 익고 타기가 헤아릴 수조차 없고,
길고 긴 장맛비에 젖은 몸은 심장을 무겁게 눌러서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날도 수없이 많았대요.

겨울에는 휘몰아치는 삭풍까지 살갓을 애이며 파고들어
더욱 자지러지듯이 울부짖었대요.
암튼,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고
민둥산 주변엔 아무것도 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바위들의 울음소리만 온 들판을 가득 매웠드래요.

그런 악조건의 환경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상주의자들에게선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드래요.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확보된 시야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사실과,
밤이면 마음먹기에 따라 별도 따올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 감각을 서랍에 넣어두고 다니는 이상주의자들에게서
영양가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이지요.
이상주의자들은 항상
이상적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추구하려 하니까요.
그것 또한 확인된바 없는 소문뿐인 이야기지만요.

암튼, 척박한 기후에 오랜 세월 동안 당금 질 당한
바위들의 몸뚱이는 무쇠처럼 단단해 저 갔지요.
고통 또한 만성이 되어 비명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위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현실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민둥산 아래쪽의 편편하고 넓은 초원을
발끝 동네라고 깔보듯이 낮추어 부르면서도
속으론 늘 부러움과 시샘으로 바라보았답니다.

바위 마을에서 부러워하는 발끝 동네 평원엔
재봉실보다도 더 가늘고 여러서 눈에 찔락 말락 한
풀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바위동네에서 바라볼땐

부드러운 연초록 비단이 뒤덮은듯한 평원의 풀들이,
실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일제히 드러누웠다 일어나는 모습이
햇살에 반짝이며 잔물결이 이는듯이 장관을 이루었지요.
막상 당하는 풀들에겐 수없이 되풀이 되는 이 노동이
너무 힘에 겨운 일이었지만요.
허리가 부러져서
두번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풀들도 부지기 수 있었으니까요.
살랑대는 실바람의 강력한 힘에 버틸 수가 없어서
쓰러졌다 다시 힘겹게 일어날 때는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판을 메아리쳤답니다.
남이 듣기엔 그 소리가 아름다운 합창 소리처럼 들렸대요.
이 세상에는 겉보기와는 정 반대의 일들이
많은 법이지요.

발끝동네는 썩 기름진 땅은 아니었으나
소비 열량이 적은 풀들이 삶을 지탱하는 데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곳이었대요.
햇살과 바람과 수분의 양이
너무 극단적으로 넘쳐나서 탈인 바위 동네에 비하면
형편없이 모자랐지만 요.
아니면 조금은 척박한 환경을
잘 견뎌내며 살았거나 둘중 하나였겠지요.

이 연약한 생명들은
영원히 다다르지 못할 꿈을 염원 하는듯,
아득하리만치 높은 곳에 위치한 바위 마을을
늘 부러움과 경외심으로 올려다보곤 했답니다.

그 이유가,
떠도는 소문을 타고 온,
이상주의자들의 영향 때문 인진 모르겠으나
바위 마을이 이 세상에서 해님과 별님을
가장 가까이서 맞이하기 때문이며
멀리서 바라봐도 강인함이 배여 나오는
바위들의 늠름한 모습 때문이었답니다.
늠름한 이웃이 평원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은근히 자랑스럽기까지 했답니다.
바위마을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비웃거나 무척 화를 낼법한 일이었지만 요.

그렇게, 처해진 입장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부러움과 시샘과 동경으로
오래고 오랜 세월을 보낸 것이지요.

그러든 어느 날,
바위 하나가 발끝동네를 내려다보며
질투 섞인 부러움으로 말했어요.
“난 이제 이곳이 지겨워! 저 아랫동네가 너무 부러워!”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있는 바위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끔찍해!”
또 다른 바위 하나가 말했어요.
“난 이곳을 떠나고 싶어!”
또, 누군가가 오랫동안 생각한 결심을 이야기 하는 듯
단호하고 섬뜩한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의 강인함이면 저 아래 살기 좋은 땅을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바위들은 순식간에 한마음이 되어서 외쳤어요.
바위 하나가
“안 돼! 그것은 나쁜 짓이야!” 하고 말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입속으로만 중얼거리다 말았어요.
설령, 입 밖으로 뱉어냈다 쳐도
그 소리는 합창하듯 외치는 보다 큰 소리에
묻혀 들고 말았을 거예요.
잠시 후엔 말하지 않길 잘했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왜냐하면 외톨이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무적! 우리는 무적!”
"세상은 강자의 편!"
"살길위한 침략은 침략이 아니닷!"
“우리는 공격한 닻!”
“우리가 살길은 전쟁뿐이 닻!”

합리화와 변명으로 무장을 하기위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하게 남아 걸 기적 그리든 양심의 찌꺼기를
다들 한마디씩 뱉어내는 말속에다 섞어서
별일 아닌 듯이 은근슬쩍 몸 밖으로 내 보내버렸어요.

자기변명에 사로잡힌 바위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예전에 들었던 울부짖음보다
몇 천배, 몇 만배 더 공포스럽게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혹독한 기후가 겹모습뿐만이 아니라
바위들의 심성까지 무자비하게 바꾸어 놓은 것이었지요.
전해진 이야기론 그렇지만
그 이유가 정말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재봉실 보다 더 가늘고 여린 풀들은,
들판에 울려 퍼지는
놀라 자빠질 만큼 충격적인 그 소리를 듣고도
사시나무떨듯 바들바들 떨기만 할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곳을 버리고 떠날 수조차 없는 자신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찌겠어요?

기름에 불을 지핀 듯
순식간에 흥분하기 시작한 바위 마을에선
보기에도 위압적인 바위 하나가
“돌격!” 하고 외치며 민둥산 아래로 몸을 날려
쏟알같이 굴러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너도 나도 돌격! 을 외치며 앞 다투어
민둥산 아래로 몸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진 않았지만
빨리 달려가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마음이 바빠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의 이웃이
갑자기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억 광년을 함께 해온 이웃끼리의 우정도
깨어 질러니 한 순간 이였답니다.

욕심에 이성을 잃은 바위들이
앞을 다투어 굴러 내리기 시작 하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울퉁불퉁한 민둥산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굴러 내리면서
서로 부딪치어 깨어지고 부서지고 튕겨 오르고
비명을 지르며 난리에 법석까지 가세한 꼴이 된 것이지요.

구러는 속력이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빨라지니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린 데다가
피어오르는 흙먼지에 앞조차 볼 수가 없으니
평원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랍니다.

제일먼저 구르기 시작한 바위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파팡! 하고 평원을 흔들며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간, 흙먼지 속에서 섬광이 일고
바위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하나의 바위가 쳐 박혔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겹쳐 떨어지며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땅에 다다른 바위들은 한참 굴러가다가 짹 짹 갈라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완전히 부스러기가 되어 굴러 떨어지는 바위조각들도 많았대요.

자욱한 흙먼지와 굉음 속에서
공포에 질린 여린 풀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서
속수무책의 마지막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바위가 굴러 내리는 소리의 공포감에
미리 정신을 잃은 풀들도 있었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무지 막지 한 바위들의 공격 같지도 않은 공격은 끝이 났습니다.
구름처럼 피어오르든 흙먼지도 가라앉고
더 넓은 평원엔 한 순간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끝이 난 거니?”
“넌 괜찮니?”
“응! 넌? 다친 곳은 없니?”
“왜 이리 조용하지?”
“무서워!”
“아! 너무 아파, 얼른 나 좀 꺼내줘!”

부서진 바위조각들 사이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두런두런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상처를 입은 풀들도 있었지만
단 하나도 무사하지 못한 바위들에 비하면
그 정도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솜털처럼 작고 여려서 오히려 피해가 적었던 것이지요.
그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긴 하지만,
‘재봉실 풀은 바위보다 강하다’는 유행어가 한동안
바람을 타고 떠돌아 다녔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요.

비록 여리디 여린 줄기의 풀들이지만
살아남은 풀들은 상처 입은 이웃을 돌보기는 물론이고
열심히 열심히 씨앗을 나르고 싹을 틔우며
느닷없이 당한 전쟁의 상흔들을 없애려 노력하였지요.
덕분에 흙물스럽게 흠어진 바위조각들이 풀들에 가려져서
기기묘묘한 동산을 이루자 멀리 떠났든 제비꼬리 나비가
제일 먼저 돌아와선 스스로 전령을 자처하며
이 아름답고 진귀한 풍경을
바위들과 싸워서 이긴 발끝동네 전사들의 이야기로
뽕 튀겨 각색한 엉뚱한 무용담까지 만들어서
여기저기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뽕뽕뽕 튀기가 되어 떠돌았지요.
원래 소문이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악의 없는 소문이 었으니까 들어줄 만은 했든 것이지요.

그 후 많은 곤충과 동물들이 모여들었고
산 교훈의 상징물인
민둥산을 바라보며
발끝 동네는 활기차게 변성해갔답니다.

그 후, 오래고 오랜 세월이 흘러
기억에서 희미해져가는 산 교훈의 상징처럼
민둥산마저 야트막한 둔덕으로 변해갔답니다.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고도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요.

그래서 生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2007/03/21

소문의 속성을 잘 아는지라 몇몇 지인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입원과 수술을 극비리에 진행했건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요즘은, 심각한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연락이 뜸하든 사람들까지 놀람과 근심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온다. 이 모든 것들이 애정의 발로이리라.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 눈덩이 처럼 불어난채 떠도는 역척을 불식시키고 애정어린 염려또한 안심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틈틈이 적어뒀든 병원 일지를 정리하여 일부를 우선 옮겨 둔다.

비록 수술을 위한 병원생활이었지만 독특한 형태의 사회를 이루며 희망과 절망의 순간들이 밤낮없이 숨 가쁘게 엇갈리는 교차로 같은 하얀 병동의 생활속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환자들의 안도와 좌절, 그 쓸쓸하고 애절한 눈빛들을 바라보는 동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절박한 삶의 드라마의 생생함이 비수처럼 나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결코 잊지 못할 가슴저렸든

순간들이 나의 삶과 예술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을런지.....

병원일지.

2월 22일, 한사랑 내과병원에서 가슴 X레이 촬영, 우측폐 상엽에 종양발견,

2월 23일, 오전 CT촬영, 제차 확인, 오후 건국대학병원 입원, 5일에 걸쳐 정밀검사

2월 24일, 서울발 오후7시40분, 복경행 항공편 연기.

2월 27일, 초기 악성종양 확인후 퇴원.(며칠의 생각끝에 수술결심)

3월 2일, 수술을 위해 강남 삼성의료원에 입원, 몇 가지 제 검사.

3월 8일, 오전 7시 30분 수술실행.오른쪽 폐 상엽에 생긴 악성 종양 제거(집도의:심영목 박사)

3월 13일, 퇴원, 현재 양평 작업실에서 산책과 가벼운 작업으로 소일하고있음 .

병원,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

00일

어제 아침에 치른 수술이 힘들었는지 열과 땀으로 침대와 이불을 적시는 사이 먼 산 능선이 여명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치고 마른 안구를 통해 흐릿하게 다가오는 풍경이지만 아침노을은 아름답다. 그것은 수술 후 안전해진 생에 대한 안도감과 운이 좋았다는 의사의 말대로 잠시 휴식 후 다시 이어질 분절 되지 않은 생의 소중함에 대한 새삼스러운 깨달음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배가되어 다가오는 것 일 것이다. 앓은 수술자리는 아프다, 쇠붙이들이 몸속을 휘저어 놓고 살점의 일부를 잘라내기까지 하였을테니 아프지않음이 이상한일 일 것이다.

00일

불과 보름전만해도 열정과 자신감으로 스스로없이 내어던든 발걸음이었는데 이렇게 덜컥 병원에 갇히고 보니 갑갑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완으로 두고 온 복경 작업실의 그림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한다는 마음만 더욱 간절해진다. 그 간절함은 밤사이 지친 육신을 희망의 봉오리로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한 자기최면의 표출 형태인 지도 모르겠다.

00일

아침엔 주사기를 든 간호사가 팔뚝을 이리 저리 살피더니 혈관들이 다 숨어 버렸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주사 바늘을 자꾸 찔러대다 보면 혈관들이 스스로 살갗 속 깊이 숨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사기로 약물 투여하기가 점점 더 힘이 들어지는 것이다. 며칠동안 밤낮없이 찔러 되는 주사바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난생처음 당해보는 경험이라 익숙해지기가 여간 힘이든 것이 아니다. 이 지옥 같은 끔찍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맑은 공기 속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모범학생처럼 의사와 간호사가 지시하는 대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00일

처음엔 처해진 상황에 납득이 가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또한 당혹스러웠으나 재빠른 사태인식와 용단으로 불과 보름 사이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니 지금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수술 후의 통증에 힘들어 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의 숨을 함께 몰아설 수 있는 것이다.

00일

수술부위에 통증이 올 때 마다 수술 전 상담 때 의사선생의 말을 떠올린다. “안 선생은 환자 중 5%안에 더는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수술에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 별 문제없이 잘 됩니다.” 의사 선생의 확신대로 수술은 무사히 잘 치러졌고 회복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한 만큼 회복도 다른 환자들 보다 빠른 편이라니 가벼워진 마음으로 옆구리를 뚫고 나와 주렁주렁 달린 호스와 오물통들을 끌고서 열심히 복도를 걷는다. 원형으로 된 복도를 한바퀴 도는데 80m라니 50바퀴를 돌면 4km가 된다. 그 긴 복도를 틈 날 때 마다 걷고 또 걸으니 하루에 4, 5킬로미터는 족히 걸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나서고 싶은 마음이 몸을 재촉하는 것이다. 간호사, 환자 할것없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아니 하루 종일 운동만 해요?” 라며 웃는다. 틈 날때 마다 들리는 K가 웃으며 이야기한다. “아니 환자얼굴이 왜 이리 좋아, 나이롱환자 아니야 이거?” 농을 하며 빠른 쾌유에 안심하는 친구의 눈빛이 따스하다.

00일

며칠후 병원을 나설때 " 벌써 퇴원해요?" 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중증환자들이 못내 마음이 아팠다.

그럼,그럼.

2007/04/09

작업실 뒷산에 올랐다. 크게 가파른 길도 아니건만 몇 걸음 내딛기도 전에 번번히 가쁜 숨이 발목을 잡는다. 터질 듯 차오르는 호흡을 달래며 잡목과 넝쿨을 헤쳐 오르는 동안 멈춰 서기를 수차례. 결국엔 야트막한 능선 위에 도착했다. 기진 맥진하여 마른 낙엽 위에 쓰러지듯 주저 앉자 나뭇가지들 사이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수술을 한지 한달 남짓, 그 사이 걸음이라곤 제대로 걸어본 적 없고, 잘려나간 폐도 아직은 회복이 들 되었을 테니 숨이 가쁘기는 당연지사일 것이다. 숲 속은, 아직 뒤엉킨 넝쿨과 앙상한 가지들 사이 사이에, 겨울의 시린 끝자락이 걸려있다. 찬찬히 살펴 보노라면 쌓인 낙엽들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솟아오른 양지 꽃과 연둣빛 진달래 순이 눈에 띄기도 한다. 고요한 숲, 적막한 시야에 검은 빛 새 한 마리가 푸르륵 소리를 내며 잡목들 사이로 사라진다..난데없는 나타난 이방인을 염탐하러 온 것일까? 몰아 쉬든 숨이 잦아들고 육체가 평정을 되찾자 숲 속 가득히 흐르는 영험 한 기운과 암시적 침묵의 적막감이 송곳 날에 대이듯 몸을 오싹하게 한다. 한동안 뜻밖의 충격에 얼이 빠져서 느슨해 졌든 감각이 다시 일어서며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숲은, 그렇게 너른 품과 침묵으로 한 인간을 보듬고 굴곡 많은 인생유전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잠시나마 병마와의 싸움에 지치고 지쳐서 드러누워 버린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다. 밤낮없이 팔뚝에 찢려 되든 항생제 때문에 백치처럼 흐릿해진 머릿속엔 비로소 안개가 걷히고 등판엔 갓 퍼올린 샘물을 끼얹었던 소름이 돈다. 벌떡 일어나 비탈을 내려오는 동안 참으로 오래 만에 의욕이 솟구쳐 올랐다. 작업실이 가까워 지자 더욱 선명해지는 머릿속, 내어 뱉는 혼잣말조차도 수술전의 평상심으로 다시 복귀가 된 것이다. “그럼, 그럼, 이까짓 일로 멍청대다니,쫄쫄”

이천 칠년 오월 십이일의 비.

2007/05/13

질은 먹구름이 앞산의 허리까지 내려 앉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쏟아지는 비는 습기와 우울의 대기를 적시며 산천을 무겁게 갈아 앉힌다.

유리창은 빗물이 타고 내려 잿빛풍경의 창 밖을 순식간에 물 얼룩으로 가리고
먹구름에 어둑해진 방안엔 고독이 넘실된다.

읽든 책을 덮고 엄지와 검지로 흐린 눈의 까풀을 눌러곤
아무 생각 없이 한동안 망부석처럼 앉아있다.

몇 줄 읽어 내려 가노라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듯 앞엣줄의 내용이 생각나질 않아
몇 번씩을 다시 되풀이 읽곤 하며 종일을 인내하느라 눈이 치친 것이다.

건망증은 필시 수술때의 전신마취 휴유증 때문일것이다.
문득 이놈의 건망증이 기억하고싶잖은 것들만 머리속에서 지워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불현듯 우산을 받쳐들고 현관문을 나선다.
콧속으로 밀려드는 비 냄새 속에 잣나무 향과 산사 꽃의 은은한 향이 섞여있다.

얼굴을 돌리니 산사나무엔 어느새 꽃들이 만개한 것이다.
쏟아지는 비의 무게를 못 이겨 늘어진 가지마다 흐드러진 꽃들,

비 때문인가? 이내맘 때문인가? 꽃의 흰빛이 처연하기 그지 없다.
하필 비 오는 날 피어날게 뭐람.

이 비 속에서 필시 반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행과 불행은
우리네 삶처럼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쪽 손으로 아직 아프고 시린 가슴과 어깨를 감싸 안는다.
우산을 타고 흐르는 빗물 사이로 초점 없는 시선을 떠나 보낸다.

깊고도 단호한, 여리면서도 강한, 절대음의 합창으로 아스라히 퍼지는 빗소리.
그 효과음에, 산천의 침묵은 더욱 무겁다.

비는, 비소리는, 우울의 아가리 속으로나마저 집어삼킨다.

기다렸다는듯, 자빠져있든 감성이 서서히 일어서고
우울속에서만 힘을 얻는 고달픈 육신이 비로소 생기를 찾는다.

꽃나물을 심다.

2007/05/26

낮에 꽃나물을 심었다.

며칠 전 전화 통화로 적어둔 약도 하나 달랑 들고 물어 물어 찾아간 시골농장에서 구해온 것이다. 얼마전 인터넷을 뒤져 나무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하는 중 어떤 원예 농장 홈 피에 들렀다가 나비들이 떴어 찾아오는 꽃나물을 판매한다고 소개한 내용을 읽고선 몇 그루 심어놓고 싶어 저서 그 농장을 찾아 나섰든 것이다.

나무를 구해 작업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심을 자리를 미리 정해 두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한곳에 모아 대충 흙으로 덮어두고 서울 집으로 향했다. 물론 다음날 일찍 와서 심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로 다음날은 커녕 4일이 지난 오늘에야 심은 것이다. 곧장 심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사이 시들해진 이파리를 바라 보며 꽃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친김에 몇 종류를 섞어서 마흔 두 그루나 사 왔으니 심기가 만만찮을 수밖에. 아내와 허리를 구부려 나무를 심는 동안 병원 응급실에서 이들을 보낸 환자답게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숨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비가 올 듯 찌푸린 하늘 때문에 부지런을 떨어 다 심고 나자 빗방울이 덧드니 시원스레 비가 쏟아져 내렸다. 작업실에 들어와 빗줄기를 바라보며 앉았다가도 우산을 받쳐들고 몇 번이나 들락대면서 심어 놓 나무들을 관찰한다. 물기 없이 시들하든 이파리들이 파릇 파릇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팬시리 기분이 좋아졌다.

그저께 아침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누웠을 때는 죽을 맛이었으나 이젠 천식도 진정이 되는 듯 호흡하기도 한결 편해졌다. 기관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조심하였더라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테니 자책을 면할 길이 없었다. 수술 후 빠른 회복으로 환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긴장이 풀린 틈을 타 예사롭게 생각했든 또 하나의 복병이 머리를 쳐든 것이다.

건강에 제동을 걸면서 까지 숨 좀 돌리고 가라는 몸의 경고성 충고를 한 순간 망각하는 사이 일어 터지고 만 것이다. 급한 성격과 태생적 반항기질에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불규칙한 생활의 습관이니 만큼 쉽게 고쳐지진 않겠으나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히 진다. 물론, 작심삼일 이라고 며칠 지나는 사이 또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 먹어보는 것 만으로도 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다.

하날 얻으면 하날 잃고 하날 잃어 면 다른 하날 얻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의 법칙이니 삶의 방식은 어느쪽으로든 스스로 선택해야만 할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목숨과 맛 바꾼 고통과 열정의 지독함으로 피 같은 아름다움을 토해내지 않았는가.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라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여야 하나?

아름답지만 바늘끝 같은...

2007/05/26

여기도 초록, 저기도 초록, 신들린 듯 요동치는 초록 물결.

눈부신 햇살속에 세상은 온통 어지러운 초록의 밭.

마당을 지키고 선 물푸레 나무, 산사 나무, 왕 벚 나무도,

산 딸 나무, 계수 나무, 자작나무도,
종일 몰아 치기만 하는 거친 바람이 서럽다.

흔들리는 잎에 현기증이 일어 산사나무 그늘에 앉는다.,
아린 눈을 감고 초록빛 공기 속으로 몸을 담그면
아름답지만 바늘끝같은 5월의 고통은 아스라 해지고
몸도, 마음도, 머릿속도, 온통 초록 빛에 젖는다.

초록빛 눈물과 초록빛 아픔,
초록빛 절망과 초록빛 희망,
초록빛 사랑과 초록빛 이별,
초록빛 연민과 초록빛 회한,
초록빛 증오와 초록빛 용서.
모나고 찢긴 모든 갈등들이 한테 녹아드는 안식의 빛깔, 초록.

땀이 솟듯이,
살갗을 뚫고 한 순간에 돌아난 이 모든 것들의 연초록 새순들,
새순은 순식간에 넝쿨이 되고 초록의 향연이 되어
바람을 가로 질러 빛보다 더 빨리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눈앞에 펼쳐진 더 넓은 초록 세상, 푸르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섞여든다.
순간 이동을 통한 영원성의 갈망.
소멸과 생성.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꿈속에서마저 잠 못 이루며 마음졸이든 간절한 바램.
허망한 몸뚱이, 분자보다 더 작은 가루가 되어
세상 여기 저기 조금씩 섞여 들고 흩뿌려져서
초록빛으로 떠돌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무엇 있으랴.
때론 바람이었다가, 때론 공기였다가, 때론 빛이었다가.

생의 모래밭 2007/06/09

마당에 내려서니 반짝이는 햇살과 실바람이 얼굴과 목덜미를 간질인다. 어느새 6월이 온 것이다. 이곳 선 바위 마을에선, 마른 바람이 갈퀴 손으로 종일 초목들 머리채를 쥐어 흔들면 5월, 그 바람이 잦아들면 6월인 것이다.

온통 바람뿐이든 세상에 바람이 떠나가자 한순간 적막한가 싶더니 다시 작은 술렁임이 일기 시작한다. 거친 바람에 부딪기어 지쳐있든 생명들이 이제 곧 떠나버릴 봄의 끝자락이나마 느껴보려는 듯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새 한 마리가 종알종알 수다를 떨며 바빠 날아간다. 나비가 나폴대고, 벌들 또한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니며 잉잉대느라 겨드랑이에 가래툰이 설 지경이다.

그 와중에 느릿 느릿 마음 마저 느긋한 존재는 나뿐인 듯, 햇볕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고, 뒤통을 지고, 콧구멍까지 벌렁 이며 거리낄 것 없이, 무한한 충만감으로 유유자적하게 마당을 거닌다.

눈을 지긋이 감고 심호흡을 할 때 마다 공기속에 묻어 들어오는 냄새들을 분석해 본다. 아 요것은 나비 비늘 냄새, 아! 요것은 지렁이 오줌냄새, 요것은 시들은 산사 꽃 냄새, 아! 요 냄새는 두더지 방귀 냄새, 아! 이 냄새는 작업실 벽에 붙어 만개한 줄 장미 향, 요 냄새는 마을 앞 개울에서 날라온 물 비린내? 아! 이 냄새는 몽골 고비사막 풀무치 냄새, 아! 인도, 케시미르의 플라타너스 이파리냄새까지.... 바람에 실려서 참으로 멀리도 왔구나. 아.... 노르망디해변의 갈매기깃털냄새까지, 그리스 애기나 섬 선홍빛 양귀비꽃 향, 마드리드 뒷골목의 퀴퀴한 지린내까지 날아왔구나. 내 생애 중 이렇게, 스스로 사슬에서 풀려 나 방치된 듯이 한가한 적이 있거나 했었는가?

쫓기듯이 달려온 격앙된 삶. 덕분에 병마가 달려든 것이지만 이제 그마저 잘 극복하고 있으니 세상사를 다시 경험해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울 따름. 이 참에 혼돈과 우울의 터널인, 지나온 시간들로부터 빠져 나와 보다 근원적 물음으로 생을 돌이켜 본다. 이렇게 자신을 다시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운인가!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충격을 통해 새롭게 경험한 몇몇 깨달음들. 더욱 진지하게 닦아오는 생, 은유와 실존의 물음, 더욱 확연해진 삶의 길,

이제 다시 나아가야 할 생의 모래밭. 너무 가득 차서 오히려 텅빈듯 잡히지 않는 광활함의 공포, 그래도 나아가야 할 무한의 모래밭, 미지의 생.

시작과 마지막

2007/06/26

지루하고 힘겹든 병원치료가 끝이 났다.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았고 고통스럽다는 항암 주사도 남들이 보기엔 비교적 수월하게 넘겼다. 월산 리 김씨가 날 볼 때 마다 “안선생은 암 체질 같소, 그 독한 주사 맞고도 와 이리 멀쩡해요?”라며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

난들 별수 있을까? 남들 처럼 힘이 들기야 했지만은 겉으로 들어내지 않고 잘 버티어낸 것이다. 머리를 감을 때 마다 한웅큼씩 빠져 나오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해진 적도 있었지만 눈에 뵈 만큼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었다.

마지막 상담하는 날인 오늘 의사가 그 동안 항암주사 맞기가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을때 그냥 웃음으로 답했다. 마지막 맞은 주사가 특히 힘이 들긴 하였지만 이까짓 것 못 견디랴 하고 탄전 피우며 다른 일에 열중하며 애써 넘긴 것이다.

항암 치료와 동시에 시작된 그 탄전 덕분에 작업실 앞 마당 한 칸의 무성하든 잡초 천국이 잔디밭으로 바뀌었고 쥐똥나무 울타리도 돌 축대로 바뀌었고 정원에 나무도 몇 그루 더 늘었다. 십수년동안을 엄두가 나질 않아 미루기만하던 일을 위기의 순간에 앞뒤 가려볼 생각도 않고 일단 저지르고 말아버린 것이다. 항생제에 절은 육체와 가물 되는 정신 속으로 스물스물 밀려 들어오는 불길하고 우울한 기운을 밀쳐내기 위하여 반사작용처럼 본능적으로 무념 무상의 노동에 열중한 것이다.

주사 맞은 날은 몸에 모기조차 달려들지 않고, 항생제 냄새가 오줌에까지 배여 나오며 코끝을 자극하니 속에서 치솟는 오기가 마음을 더욱 엷박자로 뻗대게 만든 것이다.병원 갈때 마다 주사후유증의 완화 작용을 도우는 약을 한보따리씩 받아왔지만 처음 한두번 먹다간 아예 땡계

쳐 버렸다. 오기를 지독하게도 부린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리하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진심 어린 충고를 보내 왔지만 완고한 고집을 꺾진 못하였다. 그 고집덕분에 투병과 치료에 덤덤해 졌고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동안 햇볕에 그은 모습을 바라보는 의사는 늘 만족해 했다. 오늘도 첫마디가 “안선생님은 환자 같지않아서 좋군요” 였다.

모니터를 통해 단청 촬영한 필름을 살펴 보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술자국도 잘 아물었고 모든 상태가 다 좋으니 이젠 절 만나러 올 일이 없어요” 라고 덧붙였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궁금했던 것들을 재빨리 몇마디 꺼내었다. 이젠 여행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후부터는 마음대로 다니라고 했다. 복경작업실로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라고 했다. 술은 마셔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한잔 정도씩은 괜찮다고 했다. 그 말이 가장 실망스러운 말이었지만 어찌겠는가! 일찍부터 배운 술이라 짐작컨데 지금까지 마셔 된 술의 양이 웬만한 사람이 평생을 마셔도 남을 정도는 됐을 터이니 이제 좀 적게 마셔도 억울할 것 없다 싶었다. 아무튼 훌 가분 하였다.

이제 스스로 몇 년간 주의하면서 제발 방지를 위해 건강에 신경 쓸 일만 남은 것이다. 복경작업실로 갈 때 가더라도 빈둥그릴수는 없다 싶어서 화방에 들러 물감을 샀다. 많이도 샀다. 차에 싣고 작업실로 돌아오는 동안 차창밖에 쏟아지는 빗줄기 속의 풍경을 새삼 서래 감회에 젖어 바라보았다.

꿈무늬에 달랑달랑 매어 달려 늘 따라다니든 죽음의 올가미가 결국 나를 낚아채지 못한 것이다.머리가 너무 커서 올가미를 씌우질 못한건가?? 의사의 말 대로라면 병의 조기 발견부터가 역세계 좋은 운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생에 대한 애착과 자기연민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로 내쳐질뻔한 순간을 무의식 속에서 예감한것이 아닌가 싶다.아무리 생각해 도 우연이라지만 병원가길 꼼직히 싫어하면서도 들린 병원이 그렇고 떠밀리다 싶이 받아본 검사또한 그렇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병 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한것이다.정밀 검사에서 수술까지도 오래전 계획 되어진 일처럼 너무나 아귀가 잘 들어맞아 시간 낭비없이 진행되어가는 꼴이 의아할 정도였다.

예언이 존재하듯 우리의 앞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나의 천만 다행 혹은 歸死回生 또한 미리 정해진 이치일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안도해야 할 일도 감사해야 할 일도 없이 그저 덤덤히 지금껏 살아왔듯이 성큼성큼 삶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것이다.

오늘도 수술후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 말랑말랑해진 팔뚝과 창백한 등판을 유월의 마지막 피약볕에 내어놓고 마당에 엮드려 잡풀들을 뽑는다.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듯이 잡풀 뽑기에 신경을 쏟는다.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흙을 메만지는 동안 냇이 백치의 머릿속 처럼 텅비고 마음 또한 평안해 지니 나도 모르게 마당에서 소일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화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인지를 그 누가 알랴, 그나저나 잔뜩사온 물감들은 언제 다 쓰볼꼬?

나는 곧 너희들과

2007/07/22

며칠 전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는 식당에서 몇몇 지인들과 저녁밥을 먹었다. 나의 완쾌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고 모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라 함께한 시간 내내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웠다. 저녁 7시부터 12시, 식당 문닫는 시간까지 긴 식사를 하였으니 우리도 참 어지간했던 것이다.

그날 모임에서 첫 만남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아는 모든 화가의 이빨을 책임지겠다는 치과의사 K씨의 남자친구였다. 각이 진 얼굴과 짙은 눈썹에 꿈지머리하며 건장한 체격의 첫인상이 영화속에서 본듯한 인디언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15살인가에 미국으로 건너가 근 25년을 그곳에서 보낸 사람으로서는 우리말 발음도 정확하고 우리의 옛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은 조각가였다.

평론가S씨가 그를 보며 인상이 인디언 같다고 하자 미국의 인디언 부락에서도 자신을 다른 부족의 인디언으로 착각한 일이 있다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인디언과 에스키모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삶의 지혜로 가득한 인디언에 관한 몇몇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 중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몇 편을 옮겨 적어둔다.

첫 이야기는 멕시코의 어느 인디언 부족 이야기이다.

이 부족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 받는 사람이 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냥꾼이다.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 사냥꾼으로 선출이 되면 사냥 법을 단련하는데 동물의 심장에 정확히 명중시켜 단숨에 죽일 수 없으면 활의 시위를 당기지 않도록 교육 받는다. 그것은 동물의 마지막 순간 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도인 것이다. 또 하나, 사냥꾼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탐욕으로 동물 사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부족을 위한 사냥이 명예롭고 자랑스런 책무이지만 생의 마지막엔 매우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살상한 수많은 동물들의 영혼이 괴롭히기 때문이다. 부족의 생계를 위해 많은 동물을 살생한 대가를 치르고 이승을 편안히 떠나기 위한 일종의 살풀이인 셈이다. 부족들은 고통속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후 성대한 장례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다.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인디언 문화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았다. 얼마전 FTA반대시위도중 어린돼지의 몸뚱이를 양쪽 차 사이에 매달아 산채로 찢어죽이는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보며 경악해 했던 생각이 떠 올랐다.

두 번째는 에스키모들의 전통속에 전해져오는 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규율에 따라 임종을 눈앞에 둔 부모님을 곰이 사는 동굴에 두고 오기 위해 들쳐 업고 언덕을 오르며 가족이 함께 부르는 노랫말이다.

“곰에게 잡아 먹혀도 난 두렵지 않네,

동굴 속 곰이 내 살을 먹고 살을 찢으면

어느 날 용맹한 나의 후손들이 그 곰을 사냥하리니,

마을로 끌려온 그 곰은

사랑하는 후손들의 양식이 될 테지

그것은 내가 바라든 일.

나의 영혼은 자손들의 몸 속에서

늘 함께 하리라.

자식들아 오늘 이 순간을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곧 너희들과 같이 하게 되리니."

긍정적 순환의 논리가 생활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문화를 어디서 보았는가? 더욱 매력적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이었다.

누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는가? 수술 전후의 심각했던 상황들이 벌써 아득한 옛일처럼 기억 속에서 가물 된다. 수술한지 4개월 보름 남짓, 항암치료가 끝난 지 겨우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놀라울 만큼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들을 잊고 지낸다.

몽땅 잊었다면 매우 심각한 건망증일 것이나 머릿속을 헤집고 들여다 보면 완전히 밀쳐내진 못하고 기억과 망각 사이의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걸쳐놓았다. 무의식의 장막으로 기억의 창문에 두터운 커튼을 드리워 버린 것이다. 그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명정한 의식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

수술 때의 절박함과 치료과정의 힘들었던 상황들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것, 얼핏 생각하면 잘된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사 선생과 경험자들의 당부처럼 몇 년간은 몸을 지극정성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뒷날에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데 이 상태로 생활한다면 자칫 심각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원 후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 처음엔 갓 시집온 새악씨처럼 모든 일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꼭 계획한 대로 실천해 가리라 맘을 다져 먹었으나 정해 논 시간 만큼 조금씩 진행해 가든 작업에 불이 붙으니 수십 년간 몸에 벤 불규칙한 식습관과 불규칙한 잠 습관이 어느새 의식의 안방을 차지해버리고 열심히 해야 할 운동마저 마음뿐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애잇!! 뭘다구 나고, 사람 돌게 만드는 규칙, 망할 놈의 규칙, 잠시 일에 열중하다 보면 이미 밥 때가 지나있고, 하는 수 없지 하고 툭툭대며 다시 일에 빠져있다 보면 어느새 창 밖이 푸르스름하다.

그럴 때 마다 다시 재현될 수도 있을 최악의 상황을 떠 올리며 스스로에게 엄한 규율 선생이 되어 자신을 꾸짖고 다짐해 보지만 그 짓 또한 잠시뿐 꿀꿀한 걱정일랑 은 아예 망각의 늪에 밀쳐넣어버리고 이내 익숙한 생활 습관에 젖어 든다. 덕분에 흡족 할만한 그림을 몇 점 그려 내긴 했으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매우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예술은 불규칙과 불면의 산물인가? 아! 그래도 너무나 달콤한, 규율과 원칙과 상식의 전복을 통해 길어 올려진 검은빛의 향기.

전시를 앞두고...

2007/09/30

석 달여 동안 밤잠 설치며 씨름한 작품들이 막 실려 나갔다. 팜플렛에 실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작품들을 예상보다 빨리 화랑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 동안 열기와 긴장감으로 넘실대다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작업실의 예기치 못한 풍경에 균형을 잃은 마음은 불안과 우울이 겹친다.

작업실로 들어설 때 마다 실내공기를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만들든 작품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간 빈 자리. 잠시 멍하니 앉아 몇 달 동안 인내와 고락을 통해 생산된 작품들을 문신처럼 아로새겨놓은 기억의 갈피속에서 한점 한점 다시 끄집어내어 본다.

며칠 후 전시장에서 다시 만날 그림들이기도 하고 전시 때 마다 늘상 겪는 일이기도 하건만 이순간의 통과례는 늘 첫경험처럼 가슴이 아리다. 마치 부모가 외출하는 자식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버릇처럼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대견함같은 것들이 섞인듯한 감정이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 감정 속에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미술 판에서 이번 작품들이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궁금증 (특히 관심을 가지는것은 아니지만)과 어쩌면 운이 좋아 몇몇 작품들은 내 곁을 아주 떠나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상반된 아쉬움 또한 섞여있다. 그 감정 역시 부모가 과년한 딸을 시집 보낼 때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림 파는 일을 시집 보낸다는 말로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럴 땐 그 동안 쌓인 피로와 허전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한잔의 술로 풀고 달 랐겠건만 이젠 그러지 못하는 처지이니 음습해오는 적막감과 을씨년스런 주변을 어색한 침묵 으로 바라보는 내 꼴이 갑자기 배역을 잃은 배우처럼 하릴없고 황망하다.

천창을 통해 내려앉는 어둠 속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망부석처럼 앉아있다가 마음을 추스르며 바닥에 흩어진 도구들을 챙긴다. 남은 기간 동안 몇 점을 더 제작을 해내야지만 이미 시작해 놓은 상태이니 며칠 내로 끝이 날 것이고 그 후엔 북경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작업실 문을 열고 땅거미가 내려앉는 마당에 나서자 어깨가 시리다. 풀밭 위엔 떨어진 나무 잎들이 수북하다. 비에 젖어 축축한 풀밭을 거닐며 서산너머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저녁빛 의 마지막 자락을 바라본다.

돌이켜 보면 캄캄한 터널속을 빠져 나온듯한, 올봄의 아찔하고 충격적인 병마의 기억들, 깊 고 차가운 문신을 남겨놓곤 재빨리 지나가버린 재난의 시간, 그 시간을 딛고 자라난 희망과 삶의 절실함, 암흑의 넝쿨숲을 헤쳐 나온 안도감과 더욱 선명해진 인생 길. 시름이 깊을수록 아! 삶은 더욱 아름다워라.

.... 2007/10/06

마지막 남은 몇 작품을 마무리 하기 싫어서 작업실 앞을 맴돌다 돌아서기를 벌써 며칠째 되풀 이 하고 있다. 전시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놈의 개그름이 발목을 잡는다. 오늘 아침엔 오랜만 에 보는 가을 하늘마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었다.

눈을 떴을 때 침대 위 가득 쏟아진 햇살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정남쪽을 향한 통 창을 가득 메운 파란 하늘빛엔 가슴마저 두 근 그렸다. 창외 한 칸에 드리워진 벗 나뭇가지를 무심코 바 라보다 한 순간 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벌써 몇몇 잎은 붉은색이었든 것이다.

여름 내내 끝없이 내린 비, 산천을 뒤덮었던 잿빛과 곰팡네, 습기 먹은 우울, 가을이 시작되고 도 멈출 줄을 몰랐든 비 때문에 온전한 하늘 한번 재대로 못 봤으니 계절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다가 예고 없이 밀려 든 옅은햇살과 더 높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대비할 여유도 없이 맞게된가을앓이가 걱정된 것이다.

마당에 나서니 아침햇살에 길게 드리워진 나무그림자에도 가슴이 시렸다. 둘러보니 물푸레나 무도 이미 색이 변해있었다.며칠내로 작품 몇점을 더 마무리 해야는데 작업실 들어가기가 더 욱 힘들어질것 같아서 걱정이다.

나무처럼, 2007/11/21

(작업실의 첫눈)

나무처럼 살아라. 그 곳곳함을 닮아라. 한여름의 피약별과 사나운 비바람, 긴긴밤의 고독과 삭풍의 겨울 . 이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뚝한 나무처럼.

칠흑의 밤 홀로선 외로움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가장 먼 별 까지의 교감을 위한 것이며 살이 타는 피약별과 면도날같이 냉혹한 추위는 역경과 마주 서는 용기가 얼마나 빛나는 것 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니.

술수나 변명 따위는 생각조차 수치스러운 당당함. 양지든, 음지든,비탈이든, 골목 어귀든 오직 그자리, 한가지의 번성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곳곳함. 인간의 소견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나무의 생.그 곳곳함과 당당함을 닮아라

또 하나의 풍경

2007/12/07

2007.12.7 작업실의 새벽

창 밖엔 밤을 새워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내리는 눈을 바라 보노라면

가슴속에도 풍경이 하나 생겨납니다.

약간 높은 각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찍은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낮익은 풍경.

그 들판 위에도 항상 눈이 나립니다.

그 풍경속엔 늘

홀로 걸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작은 발걸음 만큼씩 아주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져서

점처럼 작아졌다간

검거나 푸르스름한 빛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아이는 결코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토록 오랜 새월을

끝끝내 단 한번도

뒤돌아 보지 않는 그 아이의 완강한 자아.

자신임이 분명 합니다.

고집스레 보이는 뒤통수와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풍경속엔 시간이 정지된 듯

성장을 멈춘 아이가

늘
그모습으로

눈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타박 타박
오늘도
푸르거나 검은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를 점처럼 작게 만들어
삼켜 버리는
푸르거나 검은
그 빛이
이른 새벽의 빛인지
또 다른 세계의
입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는, 2007/12/17

밤은 물러가고 작업실앞 빛 잃은 가로등은 제구실을 접는다.
떠나는 어둠과 다가오는 밝음이 스치듯 만나는 순간은 숙연한 긴장감이 있다.
그 스침은 비록 짧디 짧은 찰라이긴하나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 빛은 오랜 여운으로 가슴을 적시며 지친 영혼을 사색과 성찰의 길목으로 안내한다.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가혹한 우리의 생,
우리는 이런 성찰의 기회를 통해 가혹함과 찬란함을 조화롭게 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삶에 대한 확신과 신념으로 인생의 바다를 나아간다.

베드 카우치 연작에 대한 小姑 2009/03/07

베드카우치2/2008/ 캔버스위에 아크릴릭/4.5m x 2.1m

회색 빛 절망 혹은 최악의 그림.

왜, 베드카우치이며 왜, 느닷없는 회색인가?

일 년여를 매어 달려 씨름하느라 고달팠든 화폭과의 싸움은 거의 끝이 났다. 화실에 칩거하며 견뎌온 시간들이 너무 멀고 아스라한데도 인내심이 필요했던 나날들을 막상 돌이켜 볼 라 치면 축지법을 써서 시간의 산맥을 순식간에 건너뛴 듯 제작기간 동안의 지루하고 힘들었던 일들은 완성된 그림들의 성취감에 밀리어 기억 속에서 이미 가물 그린다. 작업을 끝낼 때 마다 그 인고의 시간들을 일일이 들추어 생각하고 몸서리 친다면 프로화가로서는 자격 미달이니 차라리 붓을 놓는 편이 나으리라. 그렇듯이 작업과정의 힘겨움은 당연한 통과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힘들었다. 그 이유는 캔버스와의 씨름 속에서 빚어지는 일 때문이 아니라 사회로 부터 밀려오는 외적 요인들 때문이었다.현 정부가 들어선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들과 그나마 누더기처럼 겨우 지탱되오든 도덕과 사회정의를 썰레기통에 처박고 역사마저 노골적으로 왜곡시키는 꼴을 바라보기란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돈 만 벌수 있다면 무슨짓을 해도 서로 문제삼지말자는 암묵적 약속이 깔려있는 국민정서 속에 숨겨진 집단 이기심이 빚어놓은 대선 결과가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렵고 끔찍하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도덕적 우월감만으로 세상을 재단하겠다는 종이칼을 휘두른 진보주의자들의 나약하고 서툰 정치행태가 저질러놓은 참담한 패배를 바라보며 한동안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기까지 했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붓을 잡았을 땐 현실을 짓누르는 환경적 중압감과 율화증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의 영향이, 꽤 오랫동안 계획하였든 인물화 연작의 내용까지 대폭 수정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2007년 가을 사진폴라주 연작 '봄날은간다' 발표 이후 계획한 신작들은 화려하고 키치적인 색채의 세태풍자적 인물화였다. 세련된 소파에 기대앉거나 드러누워 나른하고 도발적인 포즈로 넘쳐나는 퇴폐의 시간을 희롱하는 인물들을 통해 권력과 성(性)과 부(副)의 은밀한 삼각관계를 그림으로 옮겨볼 생각이었으나 그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어 흑백 단색만의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화를 그리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여지없이 붕괴된 희망과 허탈감에 대한 반감에서 빚어진 냉소와 자학이 결합된 결정이었다.

밝고 화사한 실내와 화려한 소품들 대신에 물감과 붓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어두운 작업실 바닥 위에 느닷없고 생뚱맞게 연출된(권력처럼), 딱딱한 베드카우치위에 강제된 의도로 걸터앉거나 불편한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도록 모델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그리곤 각자의 개성을 통해 대립된 환경의 모순속에서도 개별적 삶의 역사가 묻어나는 건강하고 따듯한 육체의 정직성과 존재감에 대한 경의, 가공되지 않은 몸을 통해 아름다움의 본질과 존재의 끈끈함을 그려보기로 한 것이다. 관객들에게 보여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라 관객과 시선을 마주하는 주체로서의 당당함을 그리기로 한 것이다.

작업에 열중한 일년 여 동안 시임 없이 엄습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어찌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대한 자책이 자신을 괴롭혔지만 최악의 기분과 최악의 컨디션을 견디며 오직 작업에만 매달리었다. 그것만이 바깥세상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덕분에 대작 9점이 탄생했고 2008년 한해 동안 제작된 작품들의 내용과 분위기를 '회색 빛 절망 혹은 최악의 그림'이라 꾸밈하며 지루하고도 힘에 겨웠든 시간들을 견뎌낸 심정을 이렇게 너스레 떨며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화폭 앞에서 포즈를 취해준 모델들은 이웃이거나 평소 친분이 있거나 작품을 위해 섭외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환경에서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에 기꺼이 동참해준 이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린다.

* 모델 H양: 개성 있고 자부심강한 '타투' 예찬논자이며 관습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자유주의자이다*

어떤 '인터뷰'

2009/03/12

2007년 봄, 미술 잡지 '아트000'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내용은 인터뷰를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접해보진 못했지만 신선한 방식으로 창간된 미술 잡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평론가가 편집장이라 꽤히 승낙을 하였다.

그리곤 며칠 후 작업실로 찾아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그 후 편집 전에 혹시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는지 봐 달라며 정리한 원문을 메일로 보내왔다.

그리곤 얼마 후 패간 소식을 들었으니 인터뷰기사는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의욕과 소신으로 창간된 잡지이긴 했지만 상업성을 띠지 않은 만큼 경영난에 압박을 받은 모양이었다.

우리의 현실적 수준에서는 시기상조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쉬움의 여운이 남았다.

그 후 잊어버리고 살다가 며칠 전 우연히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인터뷰 내용을 발견하곤 지워버릴까 하다가 꽤 성실히 응해준 인터뷰라 기록으로 남겨둔다.

안창홍 작가_작가 청문회

예술은 삶의 바로미터,

작가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라!

경기도 동쪽 끝자락. 조금 더 가면 강원도와 맞닿아 있는 동네에 자리잡은 안창홍 작가를 만났다. 민중 미술 작가로 착실히 명성을 쌓아온 안창홍 작가는 가는 동안 상상했던 강렬함, 호전적인 인상과 전혀 거리가 멀었다. 외유내강. 그것이 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일 것이다. 자신감, 진실성, 자기 확신, 순수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차있던 그가 말하는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릿했다.

안창홍의 키워드 1 : 열정과 순수

질문: 직접 만나니 생각했던 민중 미술 작가로서의 안창홍 이미지와 다르다.

답: 어떻게 다른가? 무슨 뜻의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간혹 그런 말을 한다.민중미술은 거칠고 투쟁적일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아마 강렬하고 날카로운 메시지의 내 작품과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이 상반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예전에는 굵히거나 우회하는 법 없는 직선적인 성격이 겉으로도 베여 나왔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외부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지혜가 생긴 것이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욱 고집불통이 된것이다.

질문: 작품 양식의 변화가 꽤 크다. 초기에는 페인팅 작품이 주를 이뤘다가 현재는 사진을 이용한 콜라주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가.

답: 사진을 이용한 작업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탐구해온 방식이며 오래되고 낡은 사진들은 늘 흥미진진하게 나의 관심속에 있었다. 기념사진은 그 속에 갇힌 개인사적 시간과 사연을 뛰어넘어 사진 자체로서의 독립된 사회성을 갖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사진에 이끌린다. 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사진이나 프린트물을 이용한 콜라주로 작업을 해왔고 또 간헐적으로 선보여왔다. 2006년 사비나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사진 콜라주와 페인팅 그리고 아트사이드에서 2007년에 가졌던 사진 콜라주 작품과 같은 경우, 원래는 페인팅 작업을 위한 밑그림으로 진행했던 것인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본격적이고 독자적인 작품으로 발전한 것이다. 작은 에스키스를 바탕으로 직접 프린팅 한 대형사진을 여러 겹 오리고 붙인 위에 물감을 뿌리고 흘리기도 하며 제작한 것이다. 지금은 그 콜라주 작업들 중에서 몇점을 골라 다시 대형 캔버스 위에 옮겨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질문: 작품의 규모가 꽤 큰 편이다.

답: 지금 작업하는 것들은 평균 4.5x2.1m 정도의 크기들이다. 물론 작품이 크기와 질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무 상업적 목적에 비중을 두어 효과를 등한시한 채 작은 작업에 임하는 것이 옳은 자세는 아닐 것이다. 작품이 크다 보니 내년 봄에 치러 질 전시를 위해 전시할 미술관이 대대적인 구조 변경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질문: 예전의 작품과 같은 경우 모델을 섭외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구했나.

답: 소개 받기도 하고 직접 해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당신을 그리고 싶다."라고 제의한다. 더러는 거절 당하고 더러는 승낙을 받아낸다. 나의 열정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 것이다.

질문: 작품의 주제는 일관되지만 작품의 스타일이 세련된 느낌으로 변모하는 것 같다.

답: 세련? 방금 말씀하신 세련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 내용과 소재에 따라 다소 거칠게 그리기도 하고 반대방식으로 그릴 때도 있다. 작품 내용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열어놓은 소통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움과 신선함의 충격, 성찰과 감동, 희열과 환타지의 세계를 맛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소재와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도 그리기의 방식에서 실패하면 소통의 문을 가로막는 벽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조형적 성과와 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질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예를 들어 작품 양식이 정리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답: 내 나이는 작가로서 가장 왕성하게 작업으로 꽃을 피워야 할 때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여유로워졌고 인생의 풍파를 격어면서 적당한 배짱도 생겼으니 작업이 농익어 나올 때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다고 더 좋은 작품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소 거칠고 설익었다 할지라도 시행착오와 미숙함을 용광로처럼 녹여버리는 걱정 때문에 젊었을때 그려내는 작품에 싱싱한 아름다움이 있듯이 지금은 무르익은 테크닉과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과 사고력이 나이만큼 작품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시대, 그 나이만큼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해 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한 작가가 일생 통해 고뇌로 이루어낸 조형세계의 모든 작품들은 개별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수평적 상호보완 관계에 있기도한 것이다.

안창홍의 키워드 2 : 자기확신과 진실성

질문: 우리 현실에서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여러가지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다.

답: 사람마다 제 각각 삶의 지향점과 살아가는 원칙이 있고 가능하면 그 원칙을 통해서 지향점으로 나아가려 애쓴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미술대학 진학을 위해 쌍코피 흘릴때 나는 아예 진학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한두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굳이 이유를 이야기 하자면 그때 당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미술대학이 하찮게 보였다는 뜻이기도하다.

해마다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어렵잔케 합격해 들어가는 상급학년들이 방학때마다 찾아와 신나하며 들려주는 대학생활과 그림실력을 보며 더욱 흥미를 잃은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1학년 시절부터 독립생활을 했기때문에 또래들 보다 세상사리의 힘겨움을 좀더 일찍 알았고 너무 궁핍했기때문에 솔직히 등록금이 아까웠든 것이다.

물론 쓰질 때 없이 잡다하기만 한 공부가 하기 싫은것도 이유중의 하나였다.

좋은 그림의 생산이 빛바래고 생기없는 학문적 지식의 양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박제화 되고 무미건조한 지식과 이미 공식화된 정보와 훈련에 의한 화가수업과 풍부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건져 올려진 지혜를 바탕으로한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그리기 중 어느 것이 더 화가에게 필요한 덕목일까?

내가 원하는 화가수업을 위한 가르침은 세상 속에 흩어져있었으니 대학대신에 세상바닥을 택한 것이다. 자신만의 향기와 언어를 전달하는 방식은 홀로서기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독자적인 것으로 개발해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화가로서의 현실적 미래가 비교적 안전하게 보장된 대학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검정된 테크닉과 지식을 전수 받아 기초를 다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화가 지망생들이 대다수 이겠지만, 제도와 규율이 체질에 맞지도 않고 관심마저 없어서 혹은 너무 자신 만만해서 전혀 다른 자유와 다이내믹함이 출렁이는 삶의 현장을 선택한 화가지망생 또한 있는 것이 아니겠나. 사실 그시절 나에겐 광기와 자신감외엔 가진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 복잡 다난한 삶이 공존하는 세상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예술가의 길을 걷는 방식이 다양한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니 서로의 다른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길이 아니겠나.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듯이 미술 판 또한 권위주의와 보수적성향이 강하고 끼리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기도 하니 학력 때문에 나를 폄하하려 한 이도 있을 것이고, 아마 실제로 나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짓거리는 대다수 못나고 열등감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에겐 관심 밖이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게다가 나는 항상 미술 판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다고 생각한다. 화가가 좋은 그림 그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

우리사회에서 화가로 살아가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콤플렉스인가?

만약 그렇다면, 권위주의적이고 규격화된 교육과 훈련에 길들여져서 개성과 창의력마저 무디어진 미술대학 졸업자들은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가?

결국 서로 다른 종류의 콤플렉스에 처한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일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나의 콤플렉스였다면 그 콤플렉스가 나에겐 펄퍼질의 원동력이었고 나를 더욱 강인한 화가로 만들었으니 현실 뒤집기에 성공한 셈일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이든 해쳐나가기 나름이 아니겠나.

젊은시절, 내가 힘들어했던 것은 가난과 외로움 때문이었다.

참고로 스물다섯번의 개인전을 치를동안 첫 전시부터 내돈으로 화랑을 대관한 기억이 없을 만큼 나는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았고 지금껏 화가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았다. 주변으로부터 걸맞은 대우 또한 받아왔다.. 일류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져도, 화가란 소리를 듣긴해도, 그림을 팔아 돈을 많이 벌어도, 정치적 수완으로 권력을 움켜쥐어도, 남모르는 허기와 열등감을 품고 사는 화가가 얼마나 많은지 알거나 하나..

그런점에서 나는 자유롭고 살맛나고 행복하다.

질문: 전시를 꽤 일찍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 1976년, 정복수와 2인전 이후 1980년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지금은 젊은 나이에 쉽게 개인전들을 하지만 그때 상당히 이른 편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24회의 개인전을 치루어

내었다. 내 그림은 대중적이지 않아 상업화랑들에는 큰인기가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나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꾸준한 컬렉터 층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대중적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 애쓰는 나의 작품세계를 오히려 높이 사는 사람들이니 서로에게 고마운 일이다. 제도도 나를 가두어둘 수 없었듯이 아무것도 나를 길들이지 못했다. 나 자신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뿐이다. 지금껏 나 자신 스스로 끝없이 담금질하고 단련시킨 것이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겠나. 별볼일 없는 작가라면 이런 인터뷰가 이루어 졌겠나 (웃음)

질문: 작품에 대한 확신이 대단하다.

답: 어릴 때부터 그랬다. 내 그림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마다 나는 내 그림이 좋다고 늘 말해왔다. 그것은 자만이나 오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신의 그림을 못 그렸다고 생각하겠나 말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위선이지 않겠나. 나는 지금껏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화가가 자신의 그림이 좋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붓을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기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잖은가. 자신감 없이 어떻게 확고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겠는가? '내 것이 최고'라고 말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혹해져야 한다. 내가 스스로를 화가로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화가로 인정하겠는가. 타고난 재능과 노력을 기반으로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념과 진실된 삶이다. 화가의 삶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힘이 들더라도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생각해 바라 넓게 잘 닦여진 순탄한 길이 우선은 편하고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목적지가 뻔히 보이는 그 길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보기도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란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 삶과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예술이라는 것은 삶의 바로미터이다. 삶과 예술은 서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지. 영혼 없는 예술이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이다. 사람들이 내 작품을 강하고 무섭다거나 보기 꺼끄럽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타성에 젖은 관념으로 그림을 보기 때문이야. 관념과 선입견에서 해방된 눈으로 내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속에 시대의 진실과 영혼이 녹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 내 작품은 이 시대의 정신과 갈등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창홍의 키워드 3 : 자신감

질문: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요즘 어린 후배들이 옥션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그것에 대한 감상은 어떤가?

답: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옥션자체를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임을 일단 밝히고 이야기 하겠다. 요즘 시골에 박혀 살아서 바깥 동향을 잘은 모르겠으나 작품들이 비싸게 팔리고 잘 팔린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들려오는 이야기를 참고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요한 것은 작품들의 질이 가격에 걸맞은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국내 옥션에서 유명세를 탄 작가들 중에 높은 가격만큼 예술성이 확보된 작가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심사 숙고할 필요도 없이 난 회의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떠올려봐라. 대중적인 영화만 하더라도 인기 있는 영화와 수준 높은 영화가 분명 다르지 않은가. 인기가 있는 작품과 수준 높은 작품이 일치할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이다.

질문: 젊은 작가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진 않다.

답: 서로 다른 사람의 작품의 가격을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다.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모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이라도 팔리면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낮은 가격이라도 팔리지 않는다면 작품의 질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든지 사람들이 몰라본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나.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컬렉트들의 수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굳이 이야기 하려면 아직은 우리나라 옥션의 수준과 미술애호가들의 수준을 높은 점수로 평가해주고 싶지는 않다. 최근 한국 미술 시장의 몇몇 작가들 그림가격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누구나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러나 작품가격으로 작품의 질이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미술품의 본질적 가치는 돈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유명한 예를 들자면 반 고흐의 작품도 생전에 1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세계최고의 고가작품이지 않은가.. 당대의 문화 수준과 정서의 눈높이로 작품은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선호도나 보는 수준 또한 아직은 열악하다. 그렇지만 작가들은 꾸준히 좋은 작업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가야 한다.

질문: 민중미술화가라는 점 때문에 불리한 점은 없었는가?

답: 불리한 점?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민중미술 작가다, 아니다 로 구분하여 외부로부터 정해져 붙여놓은 꼬리표같은 명칭은 나에겐 의미가 없다. 나는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중학교 시절부터 초지일관 내 길을 가고 있고 내 작품 속 정신도 변함이 없다. 나는 지금껏 민중적 아이덴티티로 살아왔고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이념적 민중미술운동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나의 길이 민중미술 운동의 물줄기에 다시 합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을 민중미술 화가라고 하는 뜻은 이념화 되거나 정치화 되지 않은 사전적 의미의 민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망할 놈의 이 썩어빠진 나라에서 정치화 되지 않은 민중화가 어디 있겠나. 한때 몇몇 단체와 '현실과 발언'그룹에서 민중미술 운동으로 열을 올린 적도 있지만 늘 뒷전에서 몸 사리든 기회주의자들이 세상이 바뀌자 누구보다도 재빨리 민중을 내세우며 민중의 이름을 팔아 또 다른 형태의 권력자로 변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회의를 느껴 집단 운동 차원에서는 발을 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기회로 미뤄 두겠다. 그냥 저항과 자유를 노래하는, 얽매이지 않은 정신으로 현실을 그리는 현실주의 화가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예술의 본질은 저항과 자유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겠나.

질문: 미술관에서 더 인기있는 작가라고 들었다.

답: 미술관에서 나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것은 나에겐 큰 행운인 동시에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 이기도 하거니와 가능한 한 미술관으로만 발표의 장을 스스로 구분 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팔리는 것 고민하지 않고 심리적 부담 없이 작업하기 위해서 이다. 작업에 임할 때 상업화랑의 전시준비 보다 훨씬 심리적 부담감 없이 작업에 몰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말로 풀리는 대로 그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때 미술실에서.

하하 요렇게 쪼매난 소년의 머릿속에도 나름의 자아와 우주는 들어있었든것이다.

며칠 전 부산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원고청탁 전화가 걸려왔다.

부탁내용은 미술관 소식지에 부산의 원로화가 김덕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기로 했으며 제자인 내가 선생님에 대한 글을 좀 써주셨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부탁이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바쁜 일들 때문에 며칠을 정신 없이 보내면서도 틈틈이 까까머리 시절로 돌아가 선생님과 기억을 더듬다가 오늘은 원고 마감날짜가 신경 쓰여서 아예 책상머리에 앉았다. 글의 가닥을 잡으려니 생각은 추억의 빛장을 열고 아스라한 시간 속으로 냉큼 달려간다. 안 그래도 얼마 전 문안 전화를 드리고 난 후인지라 훈훈한 여운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선생님 접니다"

"누구?"

"창홍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아, 창홍이구나! 반갑다야, 축하한다, 오프닝은 잘 치렀나? 건강은 괜찮으나?"

늘 변함없는 호쾌하고 따듯한 목소리가 제자의 안부물음에 화답하셨다. 이번 부산 시립미술관 개인전 땀 직접 가든지 틈이 안 나면 아내에게 부탁해서라도 개막식 행사에 꼭 모시고 오리고 속으로 다짐해 놓고는 정작 당일이 되자 너무나 까맣게 잊어버린 생각할수록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내! 경황이 없어서 그 날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괜찮다, 안 그래도 며칠 후 희국이랑 같이 너 전시 구경가기로 해따"

희국이란 친구는 중학교 미술 부 동문인데 일찍부터 객지 생활한 친구라 중학교시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생님 댁을 찾기 시작한 이후, 지금껏 선생님과 사제지간으로, 친구의 어머니로 각별한 정을 나누는 사이다.

"아... 예, 그렇습니까? 며칠 후 부산 가는데 그때 희국이랑 같이 모시러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선생님"

"아니다 그땐 좋은데 가서 내가 한턱 쏘게"

"앗! 네엿, 그러실 랍니까? 그럼 며칠 후 부산 가서 연락 드리고 찾아 뵙겠습니다"

여든셋의 할머니이신 당신께서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어로 한턱을 쏘시겠다니 하하.사제 지간의 시시콜콜하고도 사적인 통화내용을 굳이 이렇게 지면에 옮겨놓는 이유는 중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제자들에 대한 선생님의 변함없는 정겨움과 격 없고 호방하신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선생님은 나에게 참으로 각별한 분이시다. 중학교시절 복잡한 가정사정으로 마음 붙일 때 없어 외롭게 곁돌든 나를 늘 관심 어린 따듯함으로 대해주셨다.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댁에서 보낸 기억들은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을 구심점으로 화목하기만 해 보이든 가족간의 사랑과 유대감이 그 시절엔 부러움으로, 철이 들고난 후론 따듯한 기억으로 지금껏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을 만큼 그때,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크나큰 위안이었고 유일한 것이기도 했다.

중학교시절 나는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또래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니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가릴것 없이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술실로 달려갔다.거의 하루도 그르지 않

고 껌처럼 붙어서 살은 것이다. 방과후도 마땅히 갈곳이 없었으니 미술실 마지막 문단속은 거의 내몹이였다. 사생대회라도 있을 땐 며칠씩 수업을 빠지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땐 더욱 살맛이 났고 열심히 열심히 그림을 그려댔다. 요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시절엔, 중학교때 부터 운동선수들같이 미술부원들도 소수의 정예부대처럼 그림 그리기에 전력투구 했다. 물론 철저한 자율에 의해서였다. 고등학교진학 후 아주 드물게 장래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미술부원 대다수가 일찌감치 인생의 목표를 화가로 정해놓은 때문일 것이다.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미술 실에 들리신 선생님께선 언제 오신지도 모르게 등뒤에서 “다들 열심히 그리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며 미술부원들을 격려하셨는데 선생님께선 미술 수업도 재미나고 흥미롭게 시간을 운용하셨지만 미술부 또한 통제나 간섭없이 구속 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끄셨다.

2층 복도 끝에 붙은 미술 실은 3면 벽 전체가 유리창이라 학교 뒤쪽 구덕 산의 변화무쌍한 사계절이 늘 창을 가득 매웠다. 유달리 벚나무가 많아 봄에는 온 산을 뒤덮은 벚 꽃들이 바람이라도 부는 날엔 눈발이 흩날리듯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었고 가을엔 타는 듯한 붉은 빛이 나의 가슴까지 물들었다.

마지막 겨울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햇살이 비취 더는 창가에서 추위와 계절의 우울함을 달래며 그림 그리기에 몰두해 있는데 뜻밖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그리곤 유심히 그림을 관찰하시더니 “너!. 제법인데, 그림 좋구나” 하셨다. 칭찬 한마디에 엄습하던 추위와 적막감은 어디론가 날아가버리고 소년의 가슴은 갑자기 새가슴처럼 쿵닥대며 충만해졌다. 신바람이 난 나는 땅거미가 완전히 내려앉고 넓은 미술 실에 어둠이 가득 차서 사물이 거의 분간되지 않을 때까지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었다.

그날, 그 말씀이 그토록 특별한 감흥으로 나를 고무시킨 이유는 3년 동안의 미술 부 활동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본 내 그림에 대한 선생님의 칭찬이었기 때문이다.

중학교시절의 내 그림은 주위의 그림들에 비해 늘 완성도가 떨어졌으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그림이었다. 그렇다고 그림실력이 수준미달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또래들이 그리든 그리기 방식과는 너무 달랐다는 말이다. 그날 그날 감정의 기복이 그림 속에 그대로 표출되었으며 장난기와 호기심으로 항상 뭔가 새롭고 재미난 구도 잡기와 그리기 방식에 골똘해 있었으니 좋게 표현하면 화폭은 늘 실험의 장이었고 나쁘게 표현하면 난장판이었던 것이다.

풍경화든 정물화든 묘상?하게 그리기는 매 한가지였으니 행동거지의 엉뚱함과 묘상한 그림이 다른 부원들의 눈에는 당연히 해괴하게 보였으리라. 그 증거로 미술 부 상급학년들의 눈밖에 난 나는 얻어터지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유가 아까운 그림제료를 낭비?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그리기 방식을 멈출 수가 없었다. 미술 대회가 있을 땐 심심찮게 큰상들을 타오는 동료들과는 달리 내 그림은 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비틀어 그리기와 상복없기는 고등학교때도 마찬가지였다) 내심 나도 상은 받고 싶은 마음에 혼자 남아 상 받은 부원들의 그림을 몇 번인가 훑내 내서 그려보기도 했으나 이내 지루함을 느끼곤 나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

권위주의와 통제로 학생들을 옥죄었던 그당시 학교의 보수적 울타리 속에서도 미술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상급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얻어터지는 것 외에는 만족할 만큼 자유스러웠으며 그 자유로움에 힘입어 미술 실은 언제나 활기와 의욕으로 충만했다. 돌이켜 보면 그런 자발적인 의욕과 열정은 보이지않는 뒤쪽에서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튼튼한 버팀목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창 호기심과 반항 기 많을 나이로 제법 사고뭉치였던 미술부원들은 선생님의 보살핌과 통 큰 사랑 속에서 철이 들었고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곤 제각각 세상

속으로 흡어졌다.

그 후 지금껏 나는 붓을 놓지 않았고 이제 중년의 화가가 되었으니 그 시절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와 간섭 받지 않은 자유로움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책임져야 하는 화가의 길에 큰 도움이 된 것일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이라니

청춘은 2009/05/17

불태울때 더욱 아름답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수 없는것.

청춘은 섬광같고 소멸을 위해 존재한다.

우유부단과 망설임은 낭비된시간을 먹고 사나니.

청춘의 섬광속으로 몸을 던져라.

더 늦기전에,후회의 비계덩이에

먹히기전에 .

에잇! 2009/06/01

오늘 누가 물었다.

“선생님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 음..아직 안 가본 나라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냥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대한민국 말고는 아무 곳이나 다 좋아요”

별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튀어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 이겠는가.

그러나 정작 이땅이 싫은것은 아닐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 못사는 나라.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는 나라.

정의로운 삶이 힘든 나라.

원칙보다 꿈수가 더 잘통하는 나라.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되는 나라.

나라 팔아먹은 놈들과 그에 빌붙은 놈들은 대대로 기름지고

나라위해 모든것 다 바친 사람들은 대대로 핍박받는나라.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일단 돈많이 벌면 죄가 덮히고

권력만잡으면 모든것이 용서되는 이 기막히고 천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한망국이 나는 부끄러운 것이다

작품구상을 위한 단서들. 2009/06/06

大주제: 전쟁,잔혹함,강간,단죄에 대한 이야기.

전쟁과 강간(제주4,3사건,南京 대학살,): 그당시 국제정세와배경,

정치 적 음모, 가족사속에 숨겨진 치유되지못한 상처들,

명예,결연함,충격, 아비규환,남은 자들의 슬픔,

범죄자들의 초상(자료수집)

sex ,위안부.야스쿠니신사, 전범들의 초상 ,

2006,8, 22.

중도에 대한 짧은 생각.

2009/06/07

진실과 원칙의 문제를 논할 때 마저도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면 중도라는 의미가 무책임과 회색주의의 도피처로 이용되거나 한쪽 편향(주로 우익)으로 기운 자신의 생각을 중도라는 그늘 속에 감춰서 속내를 위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토론 중에도 주제의 본질적인 문제와 진실에 접근하기 보다는 본말을 흐리게 하고 호도하며 은연중에 양비론을 들어내어 몰타기를 한다

정의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과 진실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 좌, 우의 이념에 따라 가치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입장에 따라 본질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표방하는 중도는 편향되지 않은 실용주의적 성격 보다는 수구적 사고를 은폐하기위한 경우와 양비론과 기회주의를 위장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무리들이 판을 치고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정서적, 도덕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 (中道)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바른길. 유(有)·공(空)의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진실(眞實)의 도리(道理). 고락(苦樂)의 양편을 떠난 올바른 행법(行法)

무겁고 우울한, 긴 터널 같은 복도를 ...

2009/06/08

병실 창을 통해 바라보는 아침노을은 통증으로 잠을 설친 날일수록 더욱 아름답다. 그것은 회한과 병마의 두려움 앞에서 더욱 절실해진 생의 애착 때문일 것이다. 핏빛노을이 어둠의 틈으로 번져 나오고 멀리서 소음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침대에서 어렵사리 일어 켜 새운 몸은 옆구리에 주렁주렁 매어 달린 호스를 끌고 병실 복도를 나선다.

의사 선생께서 걷는 회수만큼 회복이 빠르다고 하니 하루빨리 병동을 탈출 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긴 복도를 걷는 것이다. 너무 열심히 걷다 보니 마주치는 간호사들 마다 “또 걸어 세요?” 가 건네오는 인사였다.

너무 일러 적막한 암 병동, 무겁고 우울한, 긴 터널 같은 복도를 천천히 혹은 빠르게 걷는다. 도저히 믿기질 않는 진단이었으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술대위에 누워 마취 주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지나간 것들에 대한 회한들이 뼈저리게 밀려왔다. 인간은 죽음과 연결된 고통과 공포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 성찰이 가능한 것일까? 질병의 느닷없는 습격에 강타당한 육체와 정신은 한 순간 사기를 잃어 휘청 그렸고, 두려움마저 엄습했지만 병상의 생활은 많은 생각들로 나를 변화시켰다. 평상심을 찾는 데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덤으로 시간의 소중함까지 절실히 깨달았다.

퇴원할 즈음에는 생의 깊이를 더해줄 또 하나의 경험과 전리품을 가슴에 달았으니 어서 빨리 작업실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퇴원 후 주위에서는 무조건적인 휴식을 권했지만 작업실에 칩거하며 창작에 몰두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한 휴식 때문에 지켜내야 할 규율과 그에 따른 또 다른 긴장의 속박 대신에 창작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성취감과 정신적인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삶의 길은 아름답지만 우회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론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 아니겠는가.

2007년 3월.

이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2010/06/08

흠.....

이제 조금씩, 새작업실과 새로운 방식의 작업에 익숙해 저 간다. 간혹 물건 찾는데 약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외에는 환경과 일이 별 마찰 없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다. 오랜만에 이른 아침 작업실 유리문들을 죄다 열어 놓고 탁해진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불러들인다.

느긋이 기지개를 켜듯 이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나이가 된다. 비록 한 순간일지라도 지금은 이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임이 분명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맹렬히 그려 되든, 꿈 속에서 마저 쉬지 못하고 그려 되든 그림을, 아직 체 풀리지 않은 달콤한 피로로 소금 절인 배추 잎 같은 몸을 의자에 마낀 체 실눈을 뜨고 바라본다.”흠! 나쁘진 않군” 그 좋아하는 커피를 손수 타서 마셔보는지가 얼마만인가?

조급해진 마음에 걱정이 앞서 앞뒤 가릴 것 없이 몇 날 며칠을 그리기에만 몰두하더니 몇 점의 그림이 흡족하게 완성이 되자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비로소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초록나뭇잎들의 환희도, 마당 한 켠 팽나무 그늘에서 시들어가는 노란 수선화의 서글픈 자태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이라 이런 마음이 며칠이나, 혹은 몇 시간이나 갈지 모를 일이지만 행복감에 젖어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누려 보는 것이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이름의 돌맹이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동산이 아니겠는가.

목이 쉰듯이 칼칼한 이유는 어제, 오늘 목소리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일 것이다. 화가가 가슴과 팔만 닦아 엄씨질때까지 열씨미사용하면 댕지 언어나 야에 잊어버린들 어떠랴. 이 외로움은 화가에게 하늘이 내린 형벌이니 화가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하겠는가. 등이 아파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천천히, 천천히.

2010/06/14

그림은 발명품이 아니다.
아이디어 상품은 더더욱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루려 하지 마라.
가능한 한 세상의 반응에 귀기 우리지 말아라.
천천히 날으는 화살처럼
그저 묵묵히,
느리더라도 끈게 가야 하는 것이다.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正道엔 지름길이 없는 법이다.

열번 바라보고 한번 붓질하라.

2010/06/24

젊은 부부가 초등학생아들 두 녀석과 함께 누드모델을 서기위해 작업실로 찾아왔다. 팍팍한 생활에 시간 빼기가 힘들어서 인지 부탁을 한 후 해가 바뀌고 서야 겨우 잠을 낸 것이다. 어렵사리 얻어낸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들 부부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싶었던 것들을 적어두었던 매모 수첩을 다시 읽어보고 적합한 포즈에 대해 머릿속 스케치까지 미리 해 본 후라 꼼꼼히 포즈를 바꿔가며 가족 누드, 부부 누드, 부부각각의 누드를 충분히 사진 촬영 해 놓았다.

작업실이 시골이라 오가는 일 만으로도 길바닥에 버려지는 시간이 많아 바쁜 사람들 붙잡아 직접 앉혀두고 그럴수 없어 사진과 스케치로 작업을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물들 또한 독특한 매력과 의미가 있다.

격정적으로 들떠 있다가도 순식간에 벼랑끝까지 곤두박질칠 만큼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라 모델과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작업에 도움이 된다. 사진을 들여다 보며 기억의 환기를 통해 내가 찾는것들을 천천히 제발견 해 내는 여유로움은 캔버스속 인물들에게 나만의 향기를 불어넣기 위한 합당한 방식을 심사숙고하기에 도움이 되거니와 그림을 탄탄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변해선 않될 원칙-

화폭 뒤로 자주 물러서서 제작중인 그림을 바라보며 원하는 느낌이 묻어나는지 부지런히 관찰 하지않고 그리기에만 너무 열중하다보면 그리는 잔재미에 빠져서 정작 작품의 핵심을 이루는 큰 덩어리를 한순간 망각해 버릴때가 있다. 며칠 밤낮으로 씨름한 그림이 도로아미 타불이 되 버리는 순간인 것이다.

큰 덩어리라는것이 시각적으로 확연히 들어나는 형태가아니라 그림속에서 스물 스물 베어나오거나 칼날이나 송곳같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들이 비장된 느낌인데 눈에 뛰거나 강조되어 그려지는것이 아니고 화면 전반에서 분위기로만 느껴지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계획과 표현을 위한 인내심이 뛰따라야 한다. 그러니 그리는 동안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곧바로 막다른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손재주의 단맛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않된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숲을 그려야하는데 자칫하면 그 숲은 오간데 없고 잔가지와 넝쿨만 화면에 가득해 진다는 말이다. 작업도중 예전에 비해 그런 일들의 회수가 빈번해 진다면 그사실 자체가, 무의식 중에라도 편한 길을 갈구하고있는 것 일 것이다. 그 단맛에 익숙해 지면 자신에게 스스로를 변명할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며 수순상 돌이킬 수 없는 타협의 길로 슬그머니 첫발을 디밀게 될것이 불보듯이 뻔한일이다. 화가로서의 연륜이 쌓이고 솜씨가 무르익을수록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부분이 이런 것들이다.

비록 궁핍하고 고단해도 순수했던 젊은날 스스로에게 약속한 화가로서의 자존과 명예를 위해 힘들게 지켜온 삶에 비해 단맛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한 것 이어서 수많은 화가들이 한때나마 꿈꾸었을 명예로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쓰레기 보다는 못한 작품들을 끄적대다가 쓸쓸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는가.

능숙한 솜씨로 포장된 속이 텅빈 그림, 테크닉에만 의존한 느낌없는 그리기로 안주하느냐 아니면 벼랑끝에 선것같은 긴장감과 바지런함이 동반된 삶을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일관되게 지속시키느냐의 갈등인 것이다. 알맹이없는 그림이냐? 알맹이있는 그림이냐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편하게 사느냐 까탈스럽고 힘들게, 강박증에 시달리며 사느냐의 선택인것이니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림과 삶이 분리될수 없으니 잘그린 그림과 좋은 그림, 감동이 있는 그림과 감동이 없는 그림의 차이가 바로 이런데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그러나 언젠가는 외롭고 힘든 삶에 지쳐서 에너지도 바닥나 버릴테니 그땐 끔찍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일의 일을 오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醉中 眞談

2010/07/18

안 머시기와 만복이

며칠 전 평론가 최 머시기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안 머시기 작업실에 찾아왔다. 이유는 안 머시기의 신작들을 보기 위함이었고 올 겨울이나 내년 초, 한 머시기社에서 제 출판될 예정인 작가론에 최근작들에 대한 인상도 넣자는 안 머시기의 제안 때문이었다.

그날, 술잔이 오가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기억나는 내용들 중 안머시기가 뱉은 말들 중심으로 일단 몇 마디를 옮겨 놓는다.최 머시기의 말은 단순한 덩어리모만 두리뭉실하게 대충 옮긴다.평론가의 말들은 현란해서 토씨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이다.

화가 안 머시기의 이야기를 듣고있든 평론가 최 머시기가 말한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시는걸 듣고 있다 보면 삼십 오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흔들림 없이 똑같은데 놀랍니다. 그것참! 그래서 저에겐 선생님이 괴물같아 보이지요, 선생님과 저의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냉엄한 현실과 연관지어서 표현한 마지막 말이 당연하면서도 씩씩하게 와 다았다.

안 머시기가 받아서 말한다

“흠,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변하지 않은 것이지.,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지, 요즘 화가들 너무 자신을 함부로 취급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신념도 없어.철새나 카멜레온같아,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능거 같꺼등....중략... 아무리 천재라도 처음부터 완결된 작품을 맹글수있는게

아니야, 좋은걸 땀글수있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온갖 격량을 견디며 완결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지.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일이지. 안 그러냐?

최 머시기가 묻는다.

"작년 전시때 발표된 작품들 그전으로 되돌아 가보면 그전 작품들은 내용들이 똥똥의 극치였다고 할까? 끝간데까지 간것 같았는데 요즈음 작품들은 작년 전시때 발표된 작품들과 함께 전혀 다른 의미가 읽혀 지는대요? 이번 신작들은 좀 더 다른 의미가요, 칼라 때문인가!?"

안 머시기가 답한다.

작품은 하나 하나가 완결된 것이기도 하면서 한작가의 일생을 집집짓기로 비교했을땐 벽돌 한조각과도 같은것 이잖아,나는 평생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있고 그것들을 천천히 꺼집어 내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나 같은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채려면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작품을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평론가들 너무 개으르고 자만하고 구닥다리 지식에만 의존해, 자긍심도 없어! 자기들이 배운 군내 나고 낡은 서양미술사를 통해서 읽어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아예 접근도 못해, 결국 서양미술에 종속된 아류들 양산해 내는데만 보탬이 될 뿐이지,그러니 독자적길을가는 작가들도 끼워 맞추기식 아류로 땀글어 버리고 마는거지, 안 그러냐? 중국을 함 봐라, 말도아닌 작품들 가지고도 세계적인 것으로 올려놔짜나,물론 국력이 뒷바침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마음조차 먹질않차나,책임지기 싫타 이말이지, 정신들 채리야지. 내 말이 틀리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엮어가는 동안, 와인 두 병이 순식간에 바닥나고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쭈우욱. 쭈우욱.

안 머시기의 강변하는 야부리를 듣고있든 최 머시가 갑자기 뜬금없는 제안을한다.

"선생님 부탁 좀 드립시다, 우리학교서 특강 좀 해 주십쇼,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씀 좀 해 주십송 우리만 듣고넘기기엔 너무 아까바서 그람미닷"

옆에서 듣고 있던 대학원생 제자들이 코러스를 넣는다.

"정말입니다 선 생님! 제발요!"

"싹! 특강료 엄청시리 마이 주마 함 생각해 보께"

그날은 주거니 받거니 제법 많은 술을 마셨고 아주 모처럼, 매우, 특별히, 대단히, 엄청시리, 즐거운 날이었다.무더위와 습기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았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최 머시기의 인품 때문이기도 하고, 삼십오년이상 지속된 변함없는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 최 머시기의 지성과 안목 때문이기도 하고 모난 나의 말들을 속내야 어떻든 일단 경청해준 때문이기도 하고 고생끝에 작품 하나를 막 끝낸 시원함 때문이기도 했다.

걸터앉은 여자.

2010/10/02

개인전 준비를 위해 작업실에 칩거 후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닮은 날씨가 심상찮고 수상쩍게 연일 계속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섯 달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사월에도 폭설이 쏟아지고 봄을 체 느껴보기도 전에 들이닥친 지긋지긋한 장마와 무더위,힘에 겹든 여름의 끝자락엔 태풍마저 산천을 덮쳤다. 그리곤 가을을 체 느껴보기도 전인데 어디 선가 첫얼음이 얼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진실이고 정의고 가릴것 없이 닥치는대로 삼켜버리는 검은 권력의 아가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흥청이는 미친 세상에서 돌아앉아 화폭과 씨름하는 사이, 시간은 오만한 인간들의 세상을 희롱이라도 하듯, 손가락사이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거리낌 없고 유유자적 히리릭 지나가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달음질치는 시간만큼 거침없는 것이 또 있을까?

이 세상에서 달음질치는 시간만큼 냉엄한 것이 또 있을까?

이세상에서 시간만큼 모든 것에 공평하면서도 부당한것 또한 없을 것이다.

젊은 날은 꾸물대는 시간에 졸 갑증마저 나더니 이젠,현기증이 날 만큼 재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워 밤잠마저 설친다."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는 앞서간 경험자들의 말쌈을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것이다.만약, 어리석음으로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 없이, 미리 깨우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토록 절실히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어리석지 않은 시간운용과 나의 예술과의 함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골 싸매고 앉아서 고민할 것 없이 차라리 무위도식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 세상에 일조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궁금증, 2011/03/07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젊은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다 빈번히 받는 동일한 질문이 있다. “작업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 하루 중 언제 세요?” “영감은 언제 떠오릅니까?” “외롭진 않으세요?”마지막 질문은 정신적인것 보단 환경적 요인을 물어온것이 분명할 텐데 아마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인적 드문 시골에 묻혀 지내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 질문 외에는 화가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법한 보편적 관심사일 것이다.

나는 사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지도 않고 작업에 집중하기 좋은 특별한 시간도 없다. 그러니 생각과 그리기가 들쭉 날쭉 그날 그날의 생체의 리듬에 따라 내키는 대로다. 일단 작업을 시작하고 나면 밤이 깊었으니까 자고 낮이니까 깨어있어야 한다는 개념도 없다. 졸음이 오면 자고 배가 고프면 먹는다. 그러니 며칠씩 잠이 밀려있기도 하고 며칠씩 밤낮없이 잠에 골아 떨어지기도 한다. 누워서 편안히 자는 경우도 있지만 의자에 기대앉거나 엎드려서 톱툰이 짜투리 잠을 잘 때가 많다.

작업 중에는 먹는 것도 미뤄뒀다가 폭식으로 허기를 채우기 일쑤다. 그러다가도 매사 제쳐두고 하염없이 빈둥대기도 한다. 작업을 위한 것들과 개인적 생활이 전혀 규칙적이지도 전혀 불규칙적이지도 않다. 영감도 특별한 분위기나 집중을 통해 떠올리지 않는다. 머릿속은 영감이 라기엔 격이 맞지않은 뒤숭숭한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항상 엉켜있다, 마치 이미 가득 찬 만원 버스에 억지로 사람들을 밀어 넣듯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의 잡동사니들을 쉬임없이 밀어 넣는다. 꺼 집어 내어보면 대부분 얼토당토 않거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 그래도 그 중에는 쓸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화폭을 마주하고 붓질을 해대는 동안에도 생각들이 마구 떠올라서 잊어버리기 전에 손 닫는 곳에 메모를 해 두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은 특별한 영감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런 단편적 생각들이 모여서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의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나의 작업 내용과 방향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떠오르는 생각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땐 간혹 아주 간혹 진행 중인 작품에서 손을 아예 떼버리곤 생각에 잠길 때도 있다. 아주 간혹 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그리다 만, 꽤 많은 양의 미완성 작품들이 있다. 애착을 가지고 골똘히 그리든 작품이라도 붓을

놓고 며칠이 지나고 열정이 식어버리면, 대부분 다시 완성시키지 못한다. 미련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기와 생각들이 뒤엉켜있고 사생활과도 확연히 구별 되어있지가 않다.
머릿속엔 항상 두 가지의 필름이 돌아간다. 하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에 필요한 정보수집용이다. 영화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대화를 나누다
가도, 꿈을 꾸다가도, 응가를 하다가도 그림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재빨리 다른 한쪽 필름
에 입력 시킨다. 이러니 혼자서 복치고 장구 치느라 늘 바쁘다. 이렇게 반쯤 정신 나간 듯, 어
리버리하고 뒤숭숭하게 산다.

화가라면, 2011/06/19

이세상의 모든 욕구를 캔버스에 녹여라.

자신에게 정직하려면, 2011/06/19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하지마라.

사람들은, 2011/06/19

현재의 사랑을 통해서 지나간 사랑을 기억한다.

죽음은, 2011/06/19

항상 내 속에 있고 그 속에 삶이 있다.

끝과 시작. 2011/06/26

3월초 개인전을 끝내고 몇 달이 지나갔다.

지나 보낸 석 달을 넋 놓은듯이 푸욱 쉬기도 했지만 십 수년간 미뤄오든 고장 난 어깨와 손가
락 치료를 시작 했으니 하릴없이 마냥 놀기만 한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소개 받은 통증클리닉
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도 받았고 꼼직한 주사와 약도 처방 받았고 잘 지켜지진 않지만 처음
몇주는 의사의 지시대로 아픈 손가락과 어깨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도 써긴 했다.
농담삼아 "오른쪽 고장나면 왼쪽으로 그리지 뭐"하면서 정작, 그림 못 그리게 될까바 겁이나
기는 한 것이다.

그 와중에 또 하나 겹친 일이 있다면 개인전 준비를 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낮 밤을 파묻혀서 지내든 작업실을, 개인전 이후 어느 날 부터 인가 아예 쳐다보기조차 싫어

진 것이다.개인전을 치뤘을때 마다 이런 감정 기복의 경험이 한두 번 아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기억 속엔 없다. 내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한 작업실이 이렇게 몇 달 동안이나 스스로에게 고의적인 홀대를 받기는 처음 있는 일인 것이다. 애써 긍정적 방향으로 원인을 분석 해 보자면 수술이후 쉬임없는 전시들로 피로가 누적되 있는데다 몸의 일부가 이미 고장 나 있음에도 무리하게 밀어부친 때문일 것이다. 비장감과 과잉된 열정으로 정신과 몸을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년더리가 난 때문일 것이다.

사실, 2007년 3월 수술 이후 지금까지 숨 고를 틈도 없이 달려왔지 않은가, 뒤돌아 보면 그해 가을 아트 사이드에서 2인전 (말이 2인전이지 개인전 규모의 전시였으니까), 다음해, 2008년 봄 사비나 미술관 개인전, 다음해, 2009년 2,3월 부산 시립미술관 개인전(170점의 대규모 전시였다)과 그 해, 가을의 사비나 미술관 개인전, 일년 후인 2011년, 가나 화랑 개인전, 수술 후 아찔 할 만큼 숨 차게 달려와 5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좀 쉬어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스스로에게 허가 받지 못한 휴식이니 기간이 길어지면서 얼마 전부터 부담과 압박감으로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 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좀더 놀꺼야! 하면서 의사선생 말씀도 깜박깜박 잊어버리고 어깨와 손가락이 아프거나 말거나 마당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까지 해댄다. 여기저기 나무도 옮겨 심고, 이집 저집에서 얻어온 꽃들도 심는다. 불별더위 아랑곳없이, 초롱꽃, 참 나리, 낮 달맞이, 매자나무, 산 수국 등등, 종일을 마당에서 보내고 난 저녁이면 벌에 익은 팔둑과 콧잔등이 화끈대고 팔과 어깨 통증이 걱정스럽지만 아침이 되면 또 삽질을하고 호미질을 한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씨앗들을 파종한 후 싹 트는것을 드러다 보는 즐거움도 있다. 사르비아 중에 보라색이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다.마당에 뒤덮힌 보라색 사르비아를 상상해 보라.멋지지 않은가.

단순 노동이 가져다 주는 무상 무념, 편안함의 중독이 무서울 정도다. 그나마 지각과 연결된 이성적 사고의 여린 그나풀이 조심스럽게 은연중에 라도 그림에서 멀어져가는 육신과 낮을 다시 매듭지어주려 애를 쓰는 것이다. 사실 꽃과 나무 심기에 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상 무념에 매료됨 말고 따로 또 있긴 하다. 내가 원하는 꽃들이 만개한 꽃밭에 묻혀 흐드르진 꽃들과 기이한 나무로 가득한 정원을 화면 가득 그리고 싶은 때문인데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중첩된 시간과 연륜의 권위가 묻어나는 정원을 상상하며 하나 둘 실천으로 옮겨 보는 것이다.이 세상 모든정원은 켜켜이 쌓인 시간의 이끼 위에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 지는거이려니, 감상과 상상의 나래에 묻혀 모처럼 행복하게 챙겨먹은 안창 홍의 게릴라식 휴가도 이성과 현실에 쫓기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온 듯 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법, 끝은 시작의 또다른 이름. 그래서 어제부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느릿느릿 작업실 청소도 하고 어질러진 물건들 정리도 한다.

그동안 몸에 무리가 가는줄 알면서도 애써 작업에 열중했던 이유를 스스로 추측해 보면 수술후 무심한듯이 지내오긴 했지만 병상에 누워 느꼈든 죽음의 실제적인 공포와, 지나보낸 헛된 날들에 대한 후회와 재빠르고 냉엄한 시간에 대한 뼈저린 자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어쨌거나 며칠 후 부터 다시 화가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가 오래 전부터 세상에 태어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들의 순산을 위해 밤잠 설치며 씨름을 해야만 할 것이다. 예고, 예고 내팔짜야.!

예술가에겐,

2011/11/08

예술가에겐 가난이 미덕이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와 금전과 예술이 너무 가까와서는 결과물이 좋을수 없을것 이라는.....그땐 사회적 정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어렵사리 그림을 한 점 팔면 뭔가 죄를 지은 듯 부끄러운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술을 사곤 했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대중적 인기나 금전적인 성공과는 별개로 평가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엔 화가들뿐만 아니라 수집가들 또한 훌륭한 결실을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았지요. 투자가치보다는 예술가와 예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우선시되는 시절이었지요.

동네마다 작은 아뜰리에들이 있었고 몇몇 문하생들의 렛슨비로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작가들은 밤늦게까지 창작에 몰두하였지요. 문하생들 속에는 미대 진학생도 있었고 취미생도 있었지만 입시만을 위한 암기식 전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시선으로 미술에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쳤지요. 미술대학입시에서도 세련되고 잘 그리는 학생보다 소질과 재능을 우선시 했으니깐요. 화실은 온기와 느낌의 미학이 넘실댔고 서로 존중했으며 작가들은 가난했지만 자긍심과 보람으로, 노력한만큼 사회로부터 보상받으리라는 긍정적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지요. 문하생들 또한 선생님의 창작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커다란 행운을 덤으로 선물 받은 시절이었지요 적어도 신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예술마저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고 가치관이 물질 우선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랬었지요.

어느 해 부터인가 입시제도가 바뀌고 전국적으로 미술대학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고 뼈까번쩍 시설 좋은 기업형 전문 입시미술학원이 앞다투어 생겨나고 미술학원 재벌들도 생겨났지요. 덕분에 슈퍼마켓에 구멍가게 밀려나듯이 뒷골목 아뜰리에 작가들은 작업공간과 생활의 터전을 잃고 어느새 가난이 미덕이든 시절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아득해지고 밥줄 끊긴 절박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하게 된 것이지요. 반대로 미술학원장들은 강남 룸싸롱에서 술값으로 백지수표를 낸다는 소문들이 부러움 반, 자괴감 반으로 떠돌던 시절. 화가이기를 포기하고 시류에 편성하든지 현실의 절박함 속에서 붓과 자존심을 움켜쥐고 절망하든지 둘 중의 하나였지요. 화가들이 가치관의 갈등을 겪던 시절이었지요. 더러는 대학으로, 더러는 유학의 길로, 더러는 다른 직장으로, 살아남기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호흡을 맞추어 갔지요.

미술시장은 신흥재벌들로 흥청대고 발빠른 몇몇 화랑들은 대형화, 기업화(직원들이150명 이상)되고 신 자유주의 물결의 풍요 속에서 단맛을 마음껏 빨아 들였지요. 암기식 그리기로 치열한 경쟁의 입시를 치르고, 인문학적 철학부제의 교육을 받고 첫발을 내딛는 풋내기작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여과 없이, 잘 팔리는 작가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잘 팔리는 그림과 좋은 그림을 구분지어주던 명예로움과 자긍심의 벽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사회적 능력(잘 팔림)과 무능력(안팔림)의 이분법으로 작품수준을 평가하는 시절이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소주잔 기울이며 치열하던 작업에 대한 논쟁 대신 누구는 개인전해서 얼마 벌었더라. 누구는 작품 얼마에 팔았더라, 그친구 출세했더라, 그친구 성공했더라. 대화의 본질이 바뀐 것이지요.

뽀뽀부르주아의 재력앞에 머리조아린 상업화랑주들과 그들과 결탁한 작가들이 벗어던진 화가로서의 자긍심과 명예의 댓가로 부풀려놓은 그림가격이 작품의 질과 수준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받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 영향은 안그래도 허약한 미술판을 더욱 저급하게 만들었으며 작품 수집가들의 하향화된 안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지요. 얼마 전, 현 정부가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예술대학 평가기준을 졸업생들의 취업실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한 예인 것이지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의 한심함이라니. 대한민국과 현 정치인들의 수준에 대한 환멸과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아무리 돈에 맹종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예술 지망생들의 능력마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성과물로 평가하겠다는 천박함이라니, 무지의 소산인 그런 누를 정책이 범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한 작가의 예술적 성과물은 어렵게 어렵게 일생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이니깐요.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하는 숲과 새들처럼, 막장속에서 오염의 수치와 위험알려주는 카나리아의 노래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물질 만능에 매몰된 지적 황폐함을 막아주고 지성과 가슴을 풍요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지요.

天刑 2011/12/27

고독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다

-전시에 부쳐- 2012/02/25

(전시 서문)

안창홍

-쿠리에서 고비까지-

화가 안창홍이 사진으로 전시를 한다. 소식을 전해들은 지인들은 "왜 사진전?"하며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곧 사진전을 열 것이고, 지금은 며칠째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일에 저장된 사진들 중 전시 방향에 맞는 것들을 골라내어 색 교정하느라 시간을 죽이고 있다.

왜, 전시 제목을 안창홍 '쿠리에서 고비까지'라 정했는고 하니, 여행 사진들로 하는 전시라 그렇게 했다. 설명을 좀 더 덧붙이자면 약 이십 여 년을 일년에 한두번씩은 거의 해외로 여행을 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닌 곳이 인도의 자이살메르와 몽골의 고비사막 주변이라 그렇게 한 것이다. 쿠리는 인도의 카자흐스탄, 자이살메르에 인접해 있는 작은 마을이고, 고비는 몽골의 고비사막을 뜻한다.

지금껏 개인전을 한차례씩 치러낼 때마다 화가로서의 본분 때문에 작품하느라 길게는 몇년씩 피를 말리며 밤잠설치던 과정과 비교해보면 사실 이번 전시는 애시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목적 없이 자유롭게 셔터를 눌러댄 사진들을 보여주는 전시라 느긋하고 편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도 이미 만들어놓은 사진들 속에서 골라내어 프린트만 하면 된다는 생각의 여유로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론 스스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일지도 모를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일들을 남겨두고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약간의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그림이 시작부터 완결까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사진은 메커니즘과 인간의 합일로 이루어내는 성과물인 만큼 그 방면에 왕초보인 나로서는 도무지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카메라 만지기를 좋아했다.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몸통과 스스로 지능을 가진 듯이 보이는 탐미적이고 반들거리는 눈알) 물론 사진 찍기도 좋아했다. 궁핍과 절친한 관계이던 젊은 시절에도 제법 값나가는 카메라 (그때 카메라가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귀한 시절이었음)를 어렵사리 장만하곤 여기저기 이것저것 열심히 찍어댔었다. 나름, 예술 혼으로 품 나게 찍어 놓은 것들도 더러 있었다.

그렇게 사진과의 깊은 인연 때문인지 나의 작품들도 사진과 연관되어 있거나 사진을 이용한 것들이 많고, 마음 한편엔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 내공이 다져진, 내 방식의 연출로 빚어낸 탄탄한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픈 욕구가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 바램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정말 예기치 않던, 뜻밖의 '사진'전 -쿠리에서 고비까지-를 이번에 열게 된 것이다.

벌써 며칠째 모니터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저장 폴더를 뒤적이고 있는데, 골라낼 사진들을 살펴 보는 동안 마음은 쏠 화살이 되어 아련한 기억의 공간 속으로 날아가 감회에 젖어 헤매이기 일쑤다. 그러니 진도가 도통 나가질 않는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나에겐 의미가 있는 사진들이지만 대부분이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수준의 것들이라 편이 잘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말 그대로 조금은 산만하고 즉흥적인 여행사진들이다. 그 순간 만이라도 가능한 한 모든 상념들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싶었을 테니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전시될 사진들이 전문가적 시선으로 볼 땐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하다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전시장엔 틀을 벗어난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넘실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사진을 선별해 내는 며칠 사이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진 속 인물들이나 풍경 위에 노랑나비를 몇 마리씩 팔랑 팔랑 날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비들이 여행자의 자유롭게 일탈된 영혼의 상징처럼 사진 속 여기저기를 날아다니게 하고픈 것이다. 여차피 디지털 카메라로 낚아챈 사진들인데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색 교정 신세를 지고 있으니, 내친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 비교적 안락한 삶에서 이탈된 오지 여행은 사실 여간 힘이든 것이 아니다. 불결함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이미 생활화된 질서나 상식적인 원칙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도 틈만 나면 여지없이 그곳으로 가기 위해 배낭을 꾸리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의 향기가 그곳엔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물리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육체적인 힘겨움 쫓은 정말 하찮게 여겨질 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내심과 절심함 없이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환경과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눈빛을 바라보노라면 많은 생각들이 오간다. 자기성찰과 깨우침, 경이롭고 찬란한 고대 문명들, 척박하고 광활한 대지의 숭엄함, 사막여우, 쏟아지는 별들, 눈만 감으면 선연히 떠오르는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들이 지금 이순간도 내 손목을 잡아 끄는 것이다. 내 영혼의 한 부분은 언제나 그곳에 있고 다시 그곳으로 날아가기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산 봉우리는 높이 오를수록 주변이 멀어진다.

개인전 '아리랑' 준비를 끝내며,

2012/10/24

작년 봄에 개인전을 치른지라 좀 늘어지게 쉬고 싶었으나, 느닷없이 또 개인전을 계획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지리멸렬한 나라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에 겨운지,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울화통과 무력감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지 않고선 결국 화병 때문에 명대로 못살고 나자빠질것만 같은 불안감이, 이년 후쯤 치를 예정이던 개인전 날짜를 앞당기게 하고야 만 것이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없이 바빠지는 것 뿐,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으니깐.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개인전 준비가 시작은 됐지만, 일단 작업에 불이 붙자 산만하고 불안정 하던 정신은 한쪽 방향으로만 완전히 몰입하기 시작했다. 어스름 저녁녘으로 착각하고 마당에 나서면 다음날 새벽이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깐. 그렇게 잠까지 반납한 채 스스로를 섬처럼 고립시켜갔다. 외부소식의 유일한 창구인 인터넷 사이트에도 무관심해졌으며 종착점 없는 주변과의 정치적 논쟁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는 사이 바깥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득히 망각의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고, 마음속엔 어느 정도 평정이 찾아왔다. 덕분에 그림과 씨름하며 보낸 지난 몇 달은 행복했다. 물론 잠잠하던 우울증이 되살아나 또 다른 나락이 나를 끌어당 기긴 했지만 빈번히 찾아오는 친구 같은 사이니 견딜만한 동거였다.

허리가 빠긋했을 때도 빠듯한 일정 때문에 쉬지도 못한채 꽤 긴 기간을 붓을 들고 요상한 꼴 로 어기적어기적 사다리를 오르내렸는데 무지 아팠으나 그것 또한 꾸욱 참아냈다. 인간의 삶 이라는 것이 유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니, 이까짓 물리적 통증쯤이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바 라보며 생긴 화병에 비하랴 싶었다. 암튼 그런 뜻밖의 복병과 긴 장마, 무더위를 견디며 작업 에 열중한 나머지 며칠 전 마지막 작품에 서명을 끝내었다.

이번에 열작한 작품들은 사진 자체를 작품으로 활용하거나 사진의 모티브를 회화적 방식으로 변용해서 그린 것들이다. 이 작품들은 70년대 후반 '가족사진'연작을 시작으로 '봄날은 간다' 연작, '사이보그'연작, '부서진 얼굴'연작, '49인의 명상' 등의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해오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나에겐 생애를 투자해서 완결로 가고 있는 각별하고 애정 어린 주제들 인데, '기념사진'만을 묶어 연작으로 선보이는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의 주체이면서도 정작 역사의 장 속에서는 부재한 평범한 사람들, 이들의 이미 수 십 년 이 지난 빛바랜 기념사진들을 우리의 험난했던 근, 현대사 속의 사건들과 겹쳐보는 행위로 밑 그림(에스키스)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작업은 캔버스 위에 사진을 정확하게 옮겨 그리는 일과 인물들 마다(마치 회상에 잠 긴 듯이) 눈을 감기는 것으로 일차 작업이 마감된다.

인물들의 눈을 감긴 이유는 우수와 연민, 비애감 혹은 내면으로 침잠된 듯한 시각적 효과와 사진이 가진 고유한 정서(기억의 환기, 존재에 대한 증명)를 뒤집어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기 위함이다.

기구한 역사의 삭풍을 어쩔 수 없이 견디며 헤쳐 갔을 지친 영혼들의 상처와 권력의 폭압이 빚어낸 시대의 우울을 아울러 상징할 수 있는 얼룩(찢긴 흔적, 혈흔자국, 빛바랜, 그을린, 탄 흔자국 등)을 일차적으로 완성된 흑백그림 위에 가해하듯이 중첩시킴으로 해서 사진 속 인물

들을 그 시대의 현실 속으로 불러내어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해야 할 사건들 속으로 끌어들이
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의미의 상징들이 회화적 기법으로 화폭 위에 채워지면 전체작업은
마감된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 끄집어 낸 한 장의 사진에 포개진 가해(?)의 흔적(얼룩)과 눈을 감기는 행
위를 통해서 광기와 도발의 역사- 그 뒀안길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깨비처럼 사라져
간, 혹은 이 순간 노구를 이끌고 생의 마지막 언저리를 더듬고 있을 이들의 지난한 삶에 대한
연민을, 한과 상처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이 시대의 야만과 불길한 미래를 이
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나친, 2012/12/02

지나친 겸손은 오만이다.

술아!

니는앙마임스도천사이나니
마치양성애자의그것처럼
능수능란으로
인간의감정과혀빠다글델꼬노는.

너는
인간들으마지막구원
안식과탄식
회피와망각으아가리구나.

내 이름은 검정 2013/03/06

내 이름은 검정

2013.3.6. 안창홍

내 이름은 검정.
나는 검정이어서 우울하다 .
나는 깊고 어둡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는 모든 것을 흡수한다.
나에게 있어 섬세함이란
포옹과 어루만짐, 뒤덮음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욕망은
내 가늘고 차가운 검은 손가락 끝으로 녹아든다.

나는 자신을 눈에 띄게 드러내는 법이 없다.
나는 다른 모든 색깔과 그림자, 혹은
외로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나의 검은 품속에서는
반짝임도,
타오르던 열정도,
날아오르든 새들의 날개짓마저도 잣아들고
심장의 박동마저 기어코 숨을 죽인다.

나를 보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혹한 형벌인가.
나로 인해 어둠에 덮인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또한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나는 사방에 있고
희망과 새 삶은 내 손 끝에서 사그라들고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로 끌려온다.
나' 를' 저' 주' 하' 라'

아. 검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
고통의 저주인가!

제25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소감 전문.

2013/11/10

안녕하십니까?
안창홍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멀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는 감사와 송구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 저의 수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기사로 읽는 순간엔 좀 특별한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오기와 열정으로 달려온 세월입니다.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심이, 사회정의와 진실의 우위에 있는 이 사회에서 명예와 자존을 지켜내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화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름으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마저 통제 당하든, 군사 독재시절, 불온작가로 낙인 찍혔든 시절에도 회유와 협박을 견디며 화가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지켜냈습니다. 정

권과 체제는 위대한 작가가 아니라 사소한 작가를 사랑한다는 어느 선각자의 말씀을 위안 삼아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저는. 미술의 힘이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절대적 힘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치고 피폐한 영혼을 일 깨우고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출구로 인도하는 역할쯤은 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실된 화가로서의 길을 무소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창홍의취중예술론

2014/09/13

빛과 그늘의틈

욕망과 절제의틈

물질과 정신의틈

선과 악의틈

이곳과 저곳의틈

이세상의모든상반된가치의경계

예술은규범과단정의산물이아니라
모호함과불안함과갈등의긴장속에
서피어나는꽃이라야 더 아름답다.

*이른새벽와인몇잔에취해서
몇자구시렁그려본것을웁겨적는다.

이세상에서

2014/11/07

이세상에서

영원한것은

시간뿐이다.

스물 아홉 번 째 개인전에 부쳐

2014/11/15

작품제작과정

'슬픈 여름' 2014 천위에 아크릴릭 346cmx136cm

안창홍이 꽃을 그리다니, 어떤 꽃이 나올까? 목구멍 때문에 야합한 건가? 금년 초 개인전 준비를 시작할 즈음에 몇몇 사람들이 궁금증 반, 별 수 없군 하는 비아냥 반 섞인 농을 던졌다.

그럴 때 마다 나는 그냥 무심하고 짧은 대답으로 응수하고 말았다. “수십 년간 사람만 그리다 보니 지루해서 그냥 외도 함 해보는 거지 뭐!” 사실은, 무심한 듯 던진 대답과는 다르게 이번 에 발표되는 안창홍의 ‘뜰’ 연작들은 장고의 담금질을 통해서 길어 올린 결과물들이다. 언젠가는 자연을 그리겠다는 생각을 시작한 것이 선바위마을로 작업장을 옮긴 직후부터니까 이번 전시가 있기까지 25년, 세월이라 해도 좋을 만큼 긴 시간의 탐구와 실험을 거쳐 왔다는 말이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작업실 앞 마당을 가꾸는 데만도 2년여가 걸렸다. 그 때문에 몇 해 전부터 이른 봄이면 마당에 나가 한 두 달씩을 흙에 코를 박고 살았다. 부드러운 흙을 몇 차 실어와 마당 한 칸에 부어놓고 직접 퍼다 나르느라 비지땀을 꽤나 흘렸다. 물론 1주일에 한번 반찬거리 챙겨서 들어오는 아내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흙을 퇴비와 섞고 펴고, 여러 종류의 화묘와 씨앗들을 정성 들여 심고 물을 주고 가꾸기를 몇 년, 첫 해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구근을 미처 캐내지 않아 몽땅 얼어 죽게 한 일도 있었고, 얇은뎅이 연한 풀꽃들이 드새고 웃자라는 키다리 꽃들의 그늘에 가려 펴보지도 못한 채 창백하게 시들어버리는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철마다 피고지는 꽃들의 영고성쇠를 관찰하였다. 처음, 꽃밭을 만들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든 모양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꽃들은 스스로 번식하고 소멸하며 제 각각의 생존방식으로 치열하게 서로의 터를 잡아갔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존재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다른 생명들이 서로 뒤엉켜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뒹굴어야 하는지 나의 잔머리가 이런 이치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람, 햇살, 습기, 풍덩이, 벌, 나비, 지렁이, 너무나 많은 벌레들, 작은 새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간! 마치 인간의 세상사를 옮겨놓은 듯 한 이 흥미롭고 변화무쌍한 뜰의 생태를 관찰하는데만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다.

비록 작은 터의 꽃밭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생태는 거칠고 완고하면서도 섬세하고, 냉혹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공평했다. 그렇게 관찰만으로 2년을 보냈다. 나는 꽃밭을 통해 내가 바라보는 세상사를 녹여내고 싶었고, 또 작업방향을 그렇게 끌고 갔다.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감정의 파노라마는 내가 그리고자하는 자연의 형태 속으로 스며들었다.

뜰에는 많은 종류의 꽃들이 피고 지며 나의 시선을 사로 잡았지만 이번에 그려낸 대다수의 그림들은 맨드라미이다. 나는 화폭에 옮기기 위한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림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대상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머리와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몇 년씩 걸릴 때도 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머릿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숙성되고 있는 그릴 것들 중에서 잘 발효된 상태로 편안하게 제일 먼저 끄집어 내어진 대상이 맨드라미라는 뜻이다.

개인전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허구 많은 꽃 중에서 왜 하필 대상이 맨드라미인지, 나에겐 맨드라미가 어떤 느낌인지 물어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내 대답은 이랬다. “내 눈에 의해 관찰된 맨드라미는 느낌이 식물이라기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마치 정육점 진열장의 붉은 조명등 아래 놓여진 살코기 같은 느낌! 꽃의 형태 대부분이 좌우가 비대칭이고 괴이한 데다 원초적 느낌의 현란하고 강렬한 붉은 빛, 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 다양한 모양의 억센 줄기와 다양한 색의 이들. 온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듯이 시들어갈 때의 처연함. 망연자실, 꽃이긴 한데 꽃이 아닌 듯한 느낌”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2014년은 나에게 가혹한 해였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무차별적인 학살, 여객기피격으로 사망한 259명의 사람들, 이라크 내전, 슬픈 아프리카 빈국들의 끝없는 전쟁과 살육, 애볼라로 사망한 5000여명의 사람들, 전세계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이 모두가 피도 눈물도 없는 약

육강식의 경제논리가 모든 가치의 우위에 있는 광기와 탐욕의 결과물들이 아닌가! 그리고 잊혀질까 두려운 세월호 사건.

세월호에 갇혀 197일 동안 바닷속에 수장되어있던 지현이가 열 여덟번째 생일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이렇게 슬픈 생일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갓 피기 시작한 꽃망울이 대다수인 302명의 목숨을 수장시킨, 더러운 음모로 가득한 이 잔혹하고 슬픈 사건이 개인전 준비를 하는 동안 나를 단 한 순간도 내버려두지 않고 괴롭혔다. 세월호사건이 처리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밀려오는 자괴감, 어른으로서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힘겨운 나날들이었지만 기억에서 멀어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나았다. 간혹 마음이 평온해 지는 날은 마치 지은 죄가 들킨 듯이 심장이 느닷없이 쿵쾅대곤 했다. 그런 슬픔과 우울이 몇몇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었고 또 그렇게 그리려 애를 썼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무겁고 우울한 큰 그림들을 마무리 하고 나니 에너지가 소진된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앓아 눕기를 여러 번, 그 와중에도 소품들은 밝고 따뜻하게 그리려 나름 애를 쓰며 아침부터 이른 새벽녘까지 그리기에 열중했다. 커다란 두상도 입체로 한 점 만들었다. 제목을 '눈먼 자들의 도시'라 붙였다. 영화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영화내용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좀비들의 세상이야기이다.

얼마 전 새벽녘 취중 문자를 카톡으로 몇몇 친구들에게 날렸다.

다음날 읽어 보니 이런 글귀였다.

빛과 그늘의 틈,

욕망과 절제의 틈,

물질과 정신의 틈,

선과 악의 틈,

이곳과 저곳의 틈,

이 세상의 모든 상반된 가치의 경계.

예술은 규범과 단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모호함과 불안함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야 더욱 아름답다.

11월 어느 날 선바위마을에서 안창홍 쓰다.

안창홍의,

2015/10/08

작품이 사건을 기억하는법.

작품, 그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 나는 작품을 위해 어떤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내 작업은 큰 덩어리로 구분하자면 한 줄기에서 뻗은 두 갈래 가지로 이루어져있다. 둘 다 주변부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중 하나는 착취와 희생의 역사 속에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들의 삶을 노래한다.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지만 기득권과 지배계급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의 삶, 역사란 수많은 민초들의 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든가! 나는, 역사의 뒷안길, 잊혀진 민중들의 삶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기록물이나 사진자료들을 수집하고 들추어 내어 차용하거나 변

용하는 방식으로 제 해석해낸다. 역사의 장막, 망각의 늪에서 이들을 끄집어내어 일종의 제의를 치르는 것이다. 제작 과정 중 이들의 초상들 속에, 폭력과 야만의 역사와 뒹뒹어진 권력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슬며시 집어 넣는다. 그것은 암울한 회색 빛 미래에 대한 경종이자 살아 남은 자들의 또 다른 희망을 위한 의식행위이다.

또, 한 시선은, 앞서 이야기한 현재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주변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백화점 점원, 부랑아, 문신가게 사장, 농부, 오토바이족, 동성애자, 간호사, 친구들, 주막집 여인 등등, 생활 속에서 늘 스치고 마주치는 사람들, 이들의 육체와 눈빛을 통해서 자본과 성(性), 권력과 탐욕, 욕망과 허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 야만의 문명과 야만의 정치,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와 파열음, 비열한 수단으로 움켜진 권력과 부, 착취, 불합리하고 모순된 시스템과 사회현상들, 무지와 집단최면, 초상화 속에 이런 모순과 불합리를 정교하게 반영한다. 이 부분을 나 스스로 안창홍의 안창홍식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내 작업의 대부분은 과거와 현재를 오르내리며 망각의 그늘에 묻힌 진실과 현재 삶의 부조리에 주목한다. 특정사건의 큰 덩어리에 가려진 작은 조각들, 희생되거나 말거나 관심 밖으로 멀찌감치 밀려나 있는, 소시민들의 개인 사에 집착한다. 7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생애를 걸고 천착해오고 있는 작업 "아리랑연작"이 바로 그런 류의 작업 중 하나이다. '아리랑' 연작 중 '기념사진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하고(1979년) 얼마 후 친구 집에서 들춰본 낡은 사진첩 속에서 발견한 빛 바랜 사진 몇 장, 일제의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학도병인 남편과 하얀 한복(흑백사진 속의 흰빛이 현실 속에서도 흰색이었으리라 느껴졌다)을 차려 입은 어머니의 기념사진 한 장!, 이 비통한 한 장의 사진이 시사하는 의미는 쇠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려쳤다. 그것은 친구와의 우정으로 이루어진 공감대를 바탕으로, 파탄 난 한 가정사의 진실 속에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나는 사진 속의 친구어머니를 통해서 한과 명애를 숙명처럼 짊어진 한국여인들의 힘겨운 삶을 본 것이다. 순간 내 가슴속에는 이 상황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이 밀려왔고 친구에게서 사진 몇 장을 빌린 후 그 해 여름 내내 작업에 매달렸다. 이 젊은 부부의 우울하고 빛 바랜 사진 위에, 사진이 가진 일차원적인 특성을 뛰어넘어 역사의 폭력에 강탈당한 청춘과 생이별의 아픔을 조형언어로 아로새기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태어난 그림은 그해인가? 다음 해 봄 인가? 일본 동경, 긴자에 있는 화랑의 그룹초대전 때 첫 선을 보였다(일본 전시를 위해 마음 단단히 먹고 제작한 작품이었으니까). 그때가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이었으나(35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지만) 오프닝에 참석한 일본작가들 대다수가 부담스러움과 진지함으로 내 그림을 감상했고 그 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온 작가도 더러 있었다. 전시 후 그림은 프랑스 카뉴 회 화제에 초청되었다가 돌아왔다. 대부분 나의 작품은 실제 현상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건을 다룬 작품들 중 또 기억나는 작품이 있다면 1980년작 '그날의 기억'이라는 그림이다. 부산시절, 부마민주항쟁당시, 항쟁의 중심지에 있던 작업실에서 최루탄에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무지비한 개머리판과 군화발에 쓰러져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울음 섞인 분노로 그려 되든 모습이 아련하다.

또 다른 갈래인 인물화 작업을 할 때도 모델을 구하러 직접 거리로 나선다. 간혹 지인에게 소개받기도 하고 즉석 프리포즈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직접 프리포즈할 때가 더 많다. 사실 작업 모델이 아닌,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인들을 시골 작업실로 불러 들이고 남녀 노소 관계없이 옷을 입히거나, 벗기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의 노력을 통해 의도된 포즈로 앉거나 서있는 모델들의 몸을 통해 모멸과 불화의 이 시대를 증언하고

발언한다.

나는 늘, 그림 속엔 시대정신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 훗날 한 작가의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통증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차피 모든 그림이 시대의 반영 물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한 화가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기득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지배계급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미술이 아닌, 또 다른 상반된 시선, 이세상의 미술이 정치와 연결되지 않은 미술이 어디 있든가! 화가의 정직한 눈에 의해 기록된 저항과 자유정신이 깃든 삶의 미술이야말로 화가가 남겨야 할 유산이기도 하고 화가로서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전세계를 수렁으로 빠터린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모든 정신적 가치들을 돈의 똥꼬 아래로 전락시켜버린 물신주의의 힘과 더욱 피폐해진 우리들의 삶, 예술이라는 허울의 그늘에 숨겨진, 흥행과 부를(副)을 위한 제국주의의 또 다른 주도권 싸움, 흥행의 숨가쁜 호흡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글로벌 형 미술, 이 시대의 미술이 진정!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거나 한 것일까?" "예술이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또 다른 수단임이 맞는다면 어떤 가치로움을 위해 소통하려는 것인가?" 요즘 나는 수도 없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첨단 하이테크시대의 넘쳐나는 정보에서 등돌리고 앉은 나는 아직도, 재래식 방식을 고집 피운다. 한 사람이 사장과 직원을 겸직하는 소규모 가내공업 공장을 꾸려 가듯이 캔버스에 밀칠을 하고 팔레트 청소를 하고 새벽마다 한 움큼씩의 붓을 빠느라 노동의 시간을 보낸다. 침침한 눈 위에 돋보기 안경을 걸쳐놓고 또 다른 돋보기를 들이댄 채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그리기에 열중한다. 비록,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림도 생물과 같아서 화폭 속에 작가 자신의 땀과 노고가 배어들지 않고서는 사산한 자식처럼 죽은 그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 public art 10월호 special feature에 실린글 옮김.

함피에서 2015/11/20

함피에서''''

눈이 부신 포도 위엔

더위에 지친 개가 어슬렁대고

어두한 실내천정엔

실링팬이 느릿느릿 빙글 빙글.

낡은 스피커에선

애크먹은 기타소리

잠에 취한 듯

꿈에 취한 듯

그리운 모든 것들이

환생 한 듯 나풀나풀

나비처럼 춤을 춘다.

샛노란 현기증!

꿈이면 어떻게 현실이면 어떠랴!
 바다처럼 출렁이는 이 그리움!
 어떠한 역경도
 그리움보다는 힘들지 않아
 어떠한 고난도
 그리움보다는 사모 치지 않아.
 포도위에 쏟아지는 하얀 햇살.
 뱀의 허리처럼 차가운 시간은 느릿느릿
 땀에 젖은 가슴언저리를 기어올라
 열기로 팽창한 심장 위에 파리를 튄다.
 삶은
 사모치는 모든 것들을 묻어두는 시간의 퇴적층.
 생은
 그 퇴적층의 팻말 위에 이유를 새겨 넣는 일.
 삶의 여정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영혼을 학대하는 일.
 갈갈이 찢기 올 때까지 채찍질하는 일.
 가슴 위에 드리워진 차갑고 긴 뱀의 그림자
 창백해진 심장을
 마리화나의 햇바닥이 온기로 적신다.
 황홀 감이 부드럽게 스며든다.
 솜사탕보다 달콤하고
 손 난로보다 따스한 마리화나의 햇바닥.
 넘실대는 자유여!
 나폴대든 나비는 바닥에 내려앉고
 쏟아지는 햇살에 피어 오르는
 비늘가루.
 다시, 나른하고 달콤한 음악.
 어둑한 천정 위에선
 반세기는 살아왔을 법한 늙은 실링팬이
 신음하듯이 끼이익 끼이익
 작은 소리로 울고 있다.
 2007년 12월 29일 남인도 함피의 어느 카페에서

“나는 화가라서 행복한가?”

2016/09/30

젊은 시절 전시 오프닝 뒤풀이 자리에선 어려이 상석을 차지하던 선배 혹은 선생들, 싫든 좋
 든 요즘 내 위치가 그렇다. 어느새 세월에 떠밀리어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다. 시간의 무상함
 이라니. 여하튼 그 무상함 속에서 화가라는 직업을 위해 별 갈등 없이 한 길만 걸어온 삶이라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든 것은 큰 행운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갈등

과 유혹의 소지가 될 만한 싹들이 아예 돌아나지도 못하게 무모한 모험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스스로 자평도 해본다.

요즘 들어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선생님! 행복하시지요?” 라는 말이다. 물론 “화가라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든 안 붙든 그 이유를 염두에 두고 한말임에는 틀림이 없을 테고, 이런 인사 속에 담긴 뜻이 내가 살아오면서 화가로서의 이루어낸 성과물들과 시골의 널찍한 작업장과 주변의 환경또한 전원생활이 로망인 도시사람들에게는 결코 무관 하지않은 이유일 것이다. 암튼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마다처음 들어보는 질문인 것처럼 ”나는 화가이기 때문에 행복한가?“하고 끝없이 자문해본다.(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뻔 한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과는 늘 ”글쎄?“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이 일(화가라는 직업)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설픈 기대 따위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 아주 젊은 시절부터 깨닫고 있었다. 그러면 행복해지지도 않는 이 짓거리를 여태껏 왜 하고 있냐고? 세상에는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많지 않은가!

바늘등판 같은 고슴도치를 품에 안은 듯 한 통증의 하루하루를 견디는 젊은 날! 궁핍과 외로움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화가임을 인식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팽개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림그리기를 포기할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땐 불안정한 나를 지탱하기위한 유일한 위안이 미술이라는 장막 속을 헤매는 것이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미술이 장막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끈적이는 점액질속에 갇힌 내 영혼을 건져 올리는 일, 부조리하고 암울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울분과 분노를 삭이는 일,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일, 이 잡다한 것들을 꺼안든 토약질을 하든 미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내면을 표출해내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만 나 자신을 달래기위한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독이라는 천형의 가혹함 또한 어찌 견뎌 내었을까? (지겨운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세상의 부당함에 탄죽걸기, 분노와 울부짖음에 동조하기,, 연민의 눈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일, 화해를 위해 나 스스로에게 손을 내어 미는 일, 절름발이 영혼을 품에 안고 아득한 통로저 끝, 희미한 불빛을 향해 나아가는 일.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이놈의 통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무튼 그것이 희망의 빛이든, 절망의 빛이든 저승길을 비추는 빛이든, 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일. 내가, 미술이라는 수단을 내 삶을 건져 올리는 도구로 선택 하지 않았다면 내 불구의 영혼과 삶이 지금까지 온전할 수나 있었을까? 마약쟁이나 주거불명의 부랑자가 되어 습기 찬 뒷골목을 곰팡이 포자처럼 떠돌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왔든 별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좀 과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으나 나의 기질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나 말고는 없을 테니까).

개인전 `나르지 못하는 새`(2015 아라리오갤러리)에 부쳐.

2016/10/09

나의 개인전 <나르지 못하는 새>의 출품작은 1972년 초기작부터 2015년 작품까지 시기별로 엮여 있다. 초기작에서는 한 작가가 사적 독백으로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시선을 확장시켜 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했던 단계를 보여준다.

이 시기의 작업은 <위험한 놀이> 연작, <가족사진> 연작, <새> 연작, <사이보그의 눈물> 연작, <49인의 명상> 연작 등으로 발전해 나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달동네

풍경>(1973)이나 <매춘>(1976), 회색빛 도시의 삶을 그린 <인간 이후> 연작(1979), 엄혹했던 군사 독재 시절 핍박의 고통을 그린 <절규>(1989), 광주 민중 항쟁을 소재로 만든 테라코타 두상들, 소비문화가 움트던 시절 성 상품화를 빗대어 그린 <우리도 모델처럼>(1991), <건달>(1996) 등등, 지금까지 생애에 걸쳐 지속적 관심으로 조형화하고 있는 부당함과 부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초기작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작품이 권력과 지배계급의 반대 항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암울한 사회상을 녹여낸다.

지배계급의 반대 항에 서서

연작 중심으로 발표하는 나의 작업을 큰 덩어리로 구분하자면 한 줄기에서 뻗은 두 갈래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다 주변부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중 하나는 착취와 희생의 역사 속에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이웃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들이다. 오래 전에 노트에 적어 놓았던 작업에 대한 단상을 간추려 내어 이곳에 옮겨 본다.

나는 역사의 뒷안길, 잊힌 민중들의 삶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기록물이나 사진 자료들을 수집하고 들추어내어 차용하거나 변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해 낸다. 역사의 장막, 망각의 늪에서 이들을 끄집어내어 일종의 제의를 치르는 것이다. 제작 과정 중 이들의 초상들 속에, 폭력과 야만의 역사와 빼돌려진 권력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슬며시 집어넣는다. 그것은 암울한 회색빛 미래에 대한 경종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또 다른 희망을 위한 의식적 행위이다.

또 하나의 시선은, 앞서 이야기한 현재를 숨 가쁘게 살아가는 주변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백화점 점원, 부랑아, 문신가게 사장, 농부, 오토바이족, 동성애자, 간호사, 친구들, 주막집 여인, 걸인 등등, 생활 속에서 늘 스치고 마주치는 사람들, 이들의 육체와 눈빛을 통해서 자본과 성(性), 권력과 탐욕, 욕망과 허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

야만의 문명과 야만의 정치,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와 파열음, 비열한 수단으로 움켜 쥔 권력과 부, 착취, 불합리하고 모순된 시스템과 사회 현상들, 무지와 집단 최면. 초상화 속에 이런 모순과 불합리를 정교하게 반영한다. 이 부분을 나 스스로 '안창홍식(式)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듯 내 작업의 대부분은 과거와 현재를 오르내리며 망각의 그늘에 묻힌 진실과 현재 삶의 부조리에 주목한다. 특정 사건의 큰 덩어리에 가려진 작은 조각들, 희생되거나 말거나 관심 밖으로 멀찌감치 밀려나 있는 소시민들의 개인사에 집착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생애를 걸고 천착해 오고 있는 <아리랑> 연작이 바로 그런 류의 작업 중 하나이다.

<아리랑> 연작 중 <기념사진>(1979~)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친구 집에서 들춰본 낡은 사진첩 속에서 빛바랜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일제의 강제 징용에 끌려가는 학도병인 남편과 하얀 한복(흑백사진 속의 흰 빛이 현실 속에서도 흰색이었으리라 느껴졌다)을 차려 입은 어머니의 기념사진 한 장! 이 비통한 한 장의 사진은 쇠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

이 젊은 부부의 우울하고 빛바랜 사진 위에, 사진의 일차원적인 특성을 뛰어 넘어 역사의 폭력에 강탈당한 청춘과 생이별의 아픔을 조형 언어로 아로새기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전시에도 포토콜라주로 제작한 <아리랑> 연작을 여러 점 출품했다.

고발의 메시지

또 다른 갈래인 인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작업을 위해 모델을 구할 땐 직접 거리로 나선다. 간혹 지인에게 소개받기도 하고, 즉석 프리포즈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직접 프리포즈 할 때가 더 많다. 사실 직업 모델이 아닌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인들을 시골 작업실로 불러들이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옷을 입히거나 벗기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문화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빼앗긴다.

사람들도 직업 모델이 아닌 사람들의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어쨌든 그런 과정의 노력을 통해 의도된 포즈로 앉거나 서있는 모델들의 몸을 통해 모델과 불화의 이 시대를 증언하고 발언한다. 그렇게 2008년부터 제작한 인물화 <베드 카우치> 연작을 통해 몸의 진실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관음증적 시선을 위한 관능적 몸과 포즈가 아닌 냉혹한 현실을 견뎌내는 삶의 몸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삶의 또 다른 시선인 <사이보그의 눈물> 연작, <49인의 명상> 연작들로 전체 전시가 구성됐다. 위의 작품들과 동일선상에 있는 또 다른 작품으로 가장 최근에 제작한 <야만의 시대>에 대한 작업의 단상도 옮겨 놓는다.

2015년 9월초 터키 남서쪽 휴양도시 보드룸(Bodrum)의 해변 모래밭에서 파도에 떠밀려 온 시리아 난민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충격적인 사진과 함께 전해졌다. 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매스컴과 사람들은 한동안 난리법석을 떨어댔다. 그리곤 잊혀졌다. 물론, 사람들 저마다의 가슴 속에는 각인되어 남아 있으리라.

어른들의 더러운 욕망에 의해 유린당하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장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수도 없이 죽어 나가는 파키스탄 어린이들을 보라. 가깝게는, 이 넘쳐나는 풍요(?)의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의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에 희생되는 아이들까지!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고발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사실 작품 구상을 시작하고 입체로 작품을 제작한 해가 2009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 평면 전시를 위한 사진 작품을 만들었으니,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린 셈이다. 의료용 아기 인형을 구입해서 해체하고, 내가 의도한 형태로 재조립하고 시각적 효과를 위한 액션을 가하면서 실제 가해자처럼 마음은 힘이 들었다.

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해체된 아기 인형의 형상을 통해 강압된 희생의 끔찍함과 메시아의 숭고함이 동일선상에 올려놓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눈에 잘 띄는 작업실 벽에 걸어놓고 오며 가며 몇 년 동안 바라만 보았다. 6년째 되던 어느 날, 작품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빛을 모색하기 위해, 자연광 속에서 각각 다른 시간대에 여러 컷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었다. 여러 날 동안의 인내심이 필요한 무척 길고 지루한 작업의 과정이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터키 해변의 충격적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발표하기에 적절한 때라 생각하고 완성을 위해 매진한 것이다.

저장해 놓은 여러 장의 사진들 중 내 의도에 가장 잘 부합된 원판을 한 장 골라냈다.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대형 캔버스에 피그먼트 프린트로 옮긴 후, 적절한 부위에 레진을 부어, 짓이겨진 어린 생명의 가녀린 육체 위를 번들대는 폭력의 광기가 뒤덮여 흘러내리는 듯한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나는 늘 그림 속엔 시대정신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 훗날 한 작가의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통증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모

든 그림이 시대의 반영물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한 화가의 자세라는 생각이다. 이 세상의 미술 중 정치성을 띠지 않은 미술이 어디 있던가! 나는 화가의 시선에 의해 기록된 저항과, 타협하지 않은 자유정신이 깃든 삶의 미술이야말로 이 시대의 화가가 남겨야 할 유산이기도 하고 화가로서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수렁으로 빠트린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앞에 몰락해 버린 모든 정신적 가치들. 소중한 모든 가치들을 돈의 똥꼬 아래로 깔아 뭉개 버린 물신주의의 힘과 더욱 피폐해진 우리들의 삶. 이 시대의 미술이 진정(!)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거나 한 것일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 의구심에 대해 흔쾌한 대답을 찾을 수 있거나 한 것일까? 전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 내고 있는 한 작가의 우울하고 자조적인 독백이고 근심 어린 세상을 향한 내뿜음이다.

눈먼자들 2017/04/16

눈먼자들'blindness' 2016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릭
도시란,

자본주의의 꽃이자 상징이며 수렁이다.

더높은 빌딩숲과 그숲에 가리워진 습기찬 응달(결코 변하지않을),

명멸하는 불빛의 화려함과 환락, 넘쳐나는 풍요.

물질 만능의 뒤편길에 드리워진 빈곤과 어둠,탄식의 눈물.

정글의 법칙속에서 생존을 위한 갖은 방식들이 난무하는곳.

위선과 가식의 표정들속에 감추어진 저속함과 천박함, 극악한 이기심들,

약탈과 겁탈,마약,살인,비열함.버려지는 순정.

쓰레기통에 처박힌지 이미 오래된 양심과 진실들.

자본주의의 속성상 돈과 매춘, 부패한 권력과의 은밀한 거래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번들거리는 불빛과 네온 아래에서

은밀히 꽃을피우며 그 자양분에 빨대를 꽂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벌이는 광기어린 난투극!

먹이사슬의 하위 그룹들로 이루어진

도시빈민들의 절박하고 고달픈 삶.

배신과 상처, 고통과 비애, 그 아귀다툼 속에서

유기되거나 폐기되는 희생자들은 약자들의 몫.

그리고 침묵과 망각.

무엇인가 담보하지 않으면 작은 행복조차 누릴 수 없는

탐욕과 착취의 도시.

가진자와 힘있는자들만의 해방구.

나의 시선은 적응 하지 못해 떠난 망명자처럼

도시의 한복판을 서성이며 시간의 언저리를 더듬는다.

박쥐처럼 어둠 속을 떠돌며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종말을 바라본다.

되풀이되는 역사의 틈을 비집고

나에게 속해진 순간의 서사를 기록하기 위해

촉수를 들이 된다.

왜냐고?

내가 찾는 영감이 뿌리가 그 뒤틀린 시간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왜소함에 대해, 인간의 미약함에 대해 생각한다.

불완전한 절름발이 영혼에 대해,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한

눈먼 자들의 광기와 비애에 대해, 연민에 대해 생각한다.

푸르스름한 가로등아래 고삐를 놓아버린 듯 초점 없는 눈동자와,

룸살롱 접대부나 노래방 도우미들의 입가에 문드러진 루즈 자국처럼,

지치고 남루한 영혼들,

쇼윈도 불빛아래서 우두커니 도시의 어둠을 지키는 마네킹들과 뭐가 다를 바 있는가?

피가 낭자한 혈투를 통해 부와 명성을 거머쥐는 벼랑 끝 스포츠 격투기.

이들의 사투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은폐된 폭력성과 잔인성을 담보로 한

노골적인 장사속과 쾌락주의.(관객들을 자극하여 흥분으로 유도하기위해

투사들의 피투성이 면상을 그냥 방치한다)

로마시대 원형극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펼치든 노예들의 사투에 열광하든 관객들과

2000년이 지난 이시대 관객들 사이의 동질성과 단일성.

상업적인 전략과 중독성. 뭐가 다른 것일까?

tv를 틀면 뻘뻘하고 파렴치한 위정자들의 날름 되는 붉은 헛바닥,

똥창과 직결된 목구멍을 통해 역류하듯이 배설되는 말의 똥 덩어리들.

선동. 우민들의 집단최면과 광폭함!

나는 이 야만의 도시 속에서

쾌락과 광기에 눈먼 자들이 쌓아 올리는 신기루의 허망함을 본다.

"화가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감상적이고 일차원적인 이 물음 앞에서 나는 몇 년째 열병을 앓고 있다.

이번 작품들은

그 해답을 또 다른 형식의 표현을 통해 찾아보려 노력한 결과물 들이다.

작품들중엔

표정들 속에서 서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것들도 더러있다.

슬픔과 고독, 비애감등등,내면에서 문어나오는것들.

앞서 말한 또 다른 형식이란, 평면작업이 아닌 입체조형물을 말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드문 드문 작은 것들

(테라코타, 나무조각 혹은 기존의 상품들을 이용한 작품들)을 만들 때 마다

전격적인 입체작업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여건상 착수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더 늦기 전에" 라는 외침으로 나를 밀어붙였고

2016년 1월부터 2m남짓의 두상을 흙으로 빚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기에 푹 빠져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흙으로 빚은 원형으로 거꾸집을 만들고 합성수지로 12개의 두상을 떠내었다.

얼굴가면(156cm)은 2016년 4월경부터 작업하기 시작하였다.

합성수지의 선택은 무개 때문이다.

입체 물들의 표면을 페인팅으로 마감하기로 결정한 후

몇 가지의 재료를 놓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직접 페인팅이나, 분무기마감이나에 따라

재료선택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한 것이다.

실외용 도료는 붓에 의한 페인팅이 불가능한 이유 때문에

직접페인팅의 자유로움을 위해선

내가 가장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인

아크릴물감을 결정했다.

그 후 1년여 동안 도시군상들의 인상을 담아내기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물들이 모여져서

개인전을 통해서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제목은'눈 먼 자들'이다.

처음 시작할 땐 시행착오도 겪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누적되는 피로감에 힘이 들었으나

하나 둘 완성품이 나오기 시작하자

속도에도 탄력이 붙었고 작업과정의 고됨마저도

견딜 만 해진 것이다.

시간과 인내심이 약이었든 셈이다.